

미래에 “꼭 필요한” 작은도서관의 역할 모델 연구

연구책임자 :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



제1장 서론	0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06
2. 연구 문제	07
3. 연구 방법	07
4. 연구 제한	08
제2장 한국 사회의 예측 가능한 변화	09
1. 인구변동	10
1) 교통약자의 급격한 증가	
2)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가구	
3) 저출생	
4) 길어진 은퇴 이후의 시간, 많아지는 은퇴자 수	
5) 이주민의 증가	
2. 비대면의 확대	24
1) 다양한 고용과 업무형태, 확대된 집과 동네의 역할	
2) 정보 격차와 디지털 격차	
3) 에코 체임버, 민주주의의 위기	
4) 돌봄, 비대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	

3. 환경 위기	30
1) 환경 지표와 삶의 질 변화	
2) 탄소 중립 도시, 파리의 <15분 도시 백서>	

제3장 미래 작은도서관의 역할	38
1. 도서관들의 실험실	39
2. 아웃리치 서비스와 독자개발	47
3. 미시(微視) 커뮤니티 도서관	52
4. 교통약자의 유일한 도서관	58

제4장 미래형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변화	67
1. 외적 변화	68
2. 내적 변화	71

결론	74
-----------	-----------

참고문헌	77
-------------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최근의 문제 제기

- 2022년 9월 6일 입법 예고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다수의 사립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를 불인정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음. 시민단체들의 연대와 시민의 반대로 문제조항은 삭제되었으나, 작은도서관을 행정 범위 밖으로 밀어내는 흐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마포구의 9개 작은도서관 위탁 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작은도서관을 스터디 카페로 전환하겠다는 마포구청의 시도를 시발점으로, 서울시는 작은도서관 예산을 삭감하려다 물러섰고, 대구시는 작은도서관 예산을 전액 삭감함. 타 행정구역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응하여 작은도서관의 존재 이유를 시민들과 정책입안자에게 설득할 수 있는 담론이 필요함. 이번 사건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 언론 및 오피니언 리더의 지지, 시민단체의 연대가 작은도서관의 필요를 설득하는 힘을 확인함.

2)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미래 역할에 대한 인식 재고

- 작은도서관의 관리 감독을 맡은 행정기관의 담당자와 정치인이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작은’ 규모의 ‘도서 관리와 대여’, ‘학습실 제공’만으로 축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작은도서관 운영자 또한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스스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운영과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추이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미래에도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를 논증하고자 함.
- 작은도서관이 당대의 문제들(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도서관의 부재, 자기계발과 입시 중심의 책 읽기, 학습실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대안,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소외 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듯이, 앞으로서의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 또한 한국 사회가 처한 현재 상황, 그리고 변화의 추이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함. 판단의 기준을 미래에 두고 한편으로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 하고 ‘반응’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함.
- 본 연구는 (1) 한국 사회의 인구변동과 (2) 비대면의 확산 (3) 환경 위기를 고려할 때, 거주지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촘촘하게 위치한 다양한 유형의 아름다운 작은도서관이

근접한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함.

-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와 기획에 작은도서관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운영자에게 필요한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실험과 사례 속에서 통찰을 얻으려 함.

2. 연구 문제

- 1) 미래 10년을 전후로 도서관 문화에 영향을 줄 예측 가능한 변화는 무엇인가?
- 2) 한국 사회의 변화에 반응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기획하는데, 작은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3) 어떤 변화가 작은도서관 내적·외적으로 필요한가?

3.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 작은도서관 관련 선행 연구 논문 분석
- 작은도서관 정책 보고서와 자료집 분석
- 국내외의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 분석

2) 사례 연구

- 작은도서관의 유연성과 실험성, 독특성이 돋보이는 서비스 분석
-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이용자 면담

3) 전문가 면담

- 작은도서관이 한국 도서관사에서 선제적으로 실험한 사례와 성과 분석
- 작은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견해 포커스 그룹

4. 연구 제한

- 본 연구는 ‘미래 한국 사회에 필요한 도서관의 유형 중에 작은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역할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춤. 미래 작은도서관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개념연구(conceptual research)임. 개념의 이해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사례와 운영자 인터뷰를 인용하지만, 현존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통계나 사례를 논거로 삼는 경험 연구(empirical research)가 아님.
- 전국의 6448개 작은도서관(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설립 주체, 운영 유형, 시설과 지원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모든 경우를 만족시키는 보편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어려움. 따라서 ‘현재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혹은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별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하는 지역별 유형별 정책과 법령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루지 않음.



한국 사회의 예측 가능한 변화

※ 본 연구에서 ‘작은도서관’은 시설, 자료, 직원 등에서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지칭함. 규모가 작아도 모든 시민에게 무상으로 장서와 정보 및 이용공간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회원제 서재나 서점, 독서실, 공유 오피스와 달리 도서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가짐.

※ 한국의 「도서관법」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면적 33㎡(약 10평)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을 설치 기준을 만족해야 함. 미국은 인구 25,000명 미만의 지역에 봉사하는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지칭함.

※ 작은도서관은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자치단체 직영, 민간위탁), 사립(개인, 아파트, 교회, 새마을회, 복지시설, 시민단체, 기타 기업이나 군부대 등의 기관)으로 나뉨.

1. 인구변동

- 인구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가장 변화시킬 가장 큰 변수이자, 예측이 가능한 지표임.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인구집단들의 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 예를 들어, 1966년생인 시민이 3년 후인 2026년에 60세가 되는 미래, 즉, 81만 명이 생존하여 법정 정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거의 정해진 미래임. 현재의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 도서관 이용자 인구를 예측할 수 있음.
- 도서관은 모든 시민이 이용자 혹은 잠재적 이용자이기에, 이들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하여 공간, 자료, 서비스를 구성해야 함.

1) 교통약자의 급격한 증가

- 국토교통부에서 펴낸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교통약자 인구는

● 교통약자 현황분석(2021년)

- 2021년 기준 교통약자 인구는 전국 15,509천명으로, 총 인구대비 약 30%의 비율
- 교통약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령자 17.1%, 어린이 6.2%, 영유아 동반자 3.8%, 장애인 2.4%, 임신부 0.5% 순으로 고령자가 교통약자 중 과반수(57.1%)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단, 장애인과 다약자요인이 중복(고령+장애, 어린이+장애 등)을 무시할 경우, 5.1%

구분	총인구 (천명)		교통약자(천명)						
			소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전체	중복 제외				
전국	합	51,638	15,509	2,644	1,237	8,851	260	1,943	3,216
	남	25,746	7,340	1,528	832	3,860	0	996	1,650
	여	25,892	8,167	1,116	405	4,990	260	946	1,565
총인구대비(%)	합	100	30	5.1	2.4	17.1	0.5	3.8	6.2
	남	49.9	28.5	5.9	3.2	15	0	3.9	6.4
	여	50.1	31.5	4.3	1.6	19.3	1	3.7	6
교통약자대비(%)	합	-	100	17	8	57	1.7	12.5	20.7
	남	-	47.3	20.8	11.3	52.6	0	13.6	22.5
	여	-	52.7	13.7	6	61.1	3.2	11.6	19.2

주) (중복제외)장애인 인구는 다 교통약자와 중복선정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 중 영유아(0-5세) 및 어린이(만0-12세), 고령자(만65세 이상) 인구 제외
 • 자료 1: 고령자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65세 이상의 인구현황 (고령자 정의: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복지법」 제1조25항)
 • 자료 2: 영유아동반자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0-5세 인구현황 (영유아 정의: 만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영유아보육법」 제2조1항)
 • 자료 3: 어린이 인구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6-12세 인구현황 (어린이 정의: 만13세미만인 사람, 「도로교통법」 제2조23항)
 • 자료 4: 임신부 인구 - 행정안전부 「인구동향조사」 출생인구현황으로 대체
 • 자료 5: 장애인 인구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표 1. 교통약자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는 전국 15,508,540명으로, 총인구 51,638,809명 대비 약 30%의 비율을 차지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임신부, 영유아(만 0~5세)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만 0-12세)가 포함됨. 교통약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령자 57%, 어린이 20.7%, 영유아 동반자 12.5%, 장애인 8%, 임신부 1.7%로, 고령자의 비율이 가장 높음.
- 교통약자는 일상생활 차원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함. 대중교통 이동권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뿐 아니라 더 넓은 인구를 가리킴. 예를 들어, 만 2세 이하의 영유아를 유아차에 싣고 지하철을 타는 양육자, 버스를 홀로 타는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 20분 이상 걷기 어려운 70세 고령자 모두 교통약자에 포함됨.
- 인구추계자료를 활용하면, 2026년까지 총인구 대비, 영유아동반자, 어린이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자의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연평균 5.6% 증가)하여, 전체 교통약자는 2.0%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교통약자의 비율은 초고령화의 진전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2040년 총인구의 40%, 2050년 45%, 2060년 50%가 교통약자가 될 것으로 추정.
- 교통약자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불편은 한편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를 높이거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저상버스, 도로정비 등),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약자의 거주지의 도보 생활권 내에 생활 편의시설을 갖춤으로써 해결할 수 있음.

“도서관을 만드는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대형을 추구하다 보니 도서관이 띄엄띄엄 위치하게 된다. 도서관은 자고로 걸어갈 만한 곳에 있어야 한다 (중략) 얼마나 큰 도서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작더라도 얼마나 촘촘하게 도시 내에 분포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중략) 5천평짜리 도서관 5개보다는 5백평짜리 도서관 50개가” 이용률을 높인다. 유현준, 『어디서 살 것인가?』

- 현재 총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교통약자가 짧은 시간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도서관 및 공원 등 공공의 문화공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멀리 있어 이동하기 어려운 거리의 도서관은 아무리 공간이 훌륭해도 교통약자에게는 접근성이 낮음. 특히 극단적인 기후변화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더 어렵게 만들. 어린이 혼자, 노인이 걸어서, 유아차를 밀고,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에 도서관이 위치해야 함.

2)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

- 통계청이 발간하는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의하면, 2021년 1인가구는 716만 6천가 구로 전체 가구의 33.4%이며,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 순위로, 2인 가구는 28.3%, 3인 가구 19.4%, 4인 가구 18.8% 순임.
- 2022년 현재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면, 29세 이하가 19.8%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임.

< 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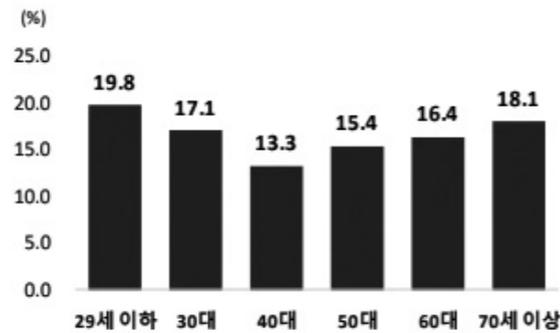


그림 1. 연령대별 1인가구 비중 (출처: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39세 이하에서는 남성 1인가구가 여성보다 더 많고, 70세 이상에서는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높음. 지역 및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의 1인가구는 대도시와 수도권 (세종, 서울, 대전, 광주, 경기)에, 60대 이상의 1인가구는 전남, 경북, 전북, 경남, 강원(농어산촌)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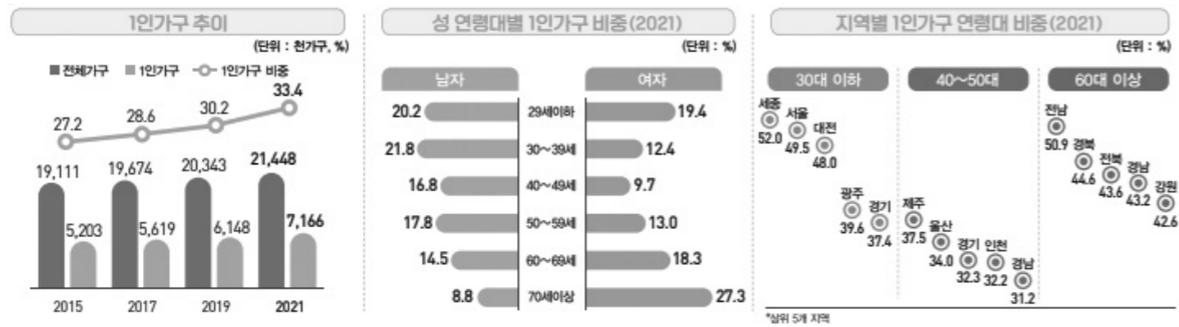


그림 2. 1인가구 통계 (출처: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1인가구는 2005년 20%였으나, 2021년 33.4%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 2030년에는 35.6%,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시간이 흐를수록 1인가구의 연령별 비중은 현재와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 2050년, 1인가구 중 29세 이하의 비중은 7.5%로 감소하나, 70세 이상은 42.9%로, 60대 이상은 16%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즉 2050년에는 1인가구의 약 60%가 60대 이상일 것으로 예측됨.
- 서울대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의 “1인가구의 유형별 일상생활 실태와 정책 욕구”, 「1인가구 정책 포럼: 1인가구의 다차원적 특성과 유형화」에 따르면, 1인가구의 공통적인 문제는 빈곤과 사회연결망 자원의 결여로 나타남. 그러나 유형별로 각기 다른 일상의 욕구가 있음.

서울시 사례) 1인가구의 집단 분화 : 4種5色 1인가구

노마딕 싱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대 중심 • 대학가, 고시촌을 중심으로 • 직업이 불안정한 블루칼라 종사자들, 청년실업자들, 기존 취업시장에서 후퇴하여 새로운 직업을 모색하는 계층
불안한 독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대 후반, 50대, 60대의 장년 독신자들 • 기러기 가족, 이혼율의 상승, 기타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해체된 가족의 결과
실버 싱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집단 • 독거노인은 사회적, 정책적 보호대상
골드 싱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회문화를 형성하는 집단 (골드미스, 미스터 집단) • 3~40대가 주류로 오늘날 시장(Market)의 주목 대상 • 도시의 새로운 문화와 가치 형성
화이트 싱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종에 종사하는 싱글들 • 직업안정성은 블루칼라 직종에 비해 확보됨 • 30대가 초반 연령층

표 2. 1인가구의 집단적 특성 (출처: 김석호, “1인가구의 유형별 일상생활 실태와 정책 욕구”, 「1인가구 정책 포럼: 1인가구의 다차원적 특성과 유형화」)

- 김석호는 서울시 사례에서 1인가구를 5종류로 유형화함. 노마딕 싱글 (30대 중심의 블루 칼라와 청년 실업자로 고시촌과 대학가에 거주), 불안한 독신자 (40대 후반, 50, 60대 장년 독신자로, 가족 해체를 겪은 이들), 실버 싱글 (고령자 독거노인), 골드 싱글(30~40대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며 자신의 여가, 문화에 대한 소비 여력이 있음), 화이트 싱글(30대 초반의 사무직 종사자, 생애주기의 과도기적 단계로 1인가구로 생활)로 유형화.

- 다섯 유형 중, 낮은 소득, 취약한 주거, 사회적 고립, 소극적 문화 및 여가생활의 문제를 겪고 있는 유형은 노마딕 싱글인 청년 1인가구, 불안한 독신자 장년 1인가구, 실버 싱글인 고령 1인가구임.
- 노마딕 싱글인 청년 1인가구는 저소득층 산업예비군의 특성을 띠며, 무주택, 월세 비율이 높고,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높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 편의점에서의 제한된 혼밥의 특성을 보임. 청년 여성 1인가구는 보안 등 주거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함. 또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의논하고 조언할 사회적 어른 토로함.
- 불안한 독신자로 분류된 40대 후반부터 60대의 장년 1인가구는 비혼, 가족 해체 (이혼, 자녀 교육으로 인한 국내외 기러기, 실직 등)으로 생성. 지난 20년간 다른 어떤 세대보다 증가율이 높음. 이어봉의 “1인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년 10월) 중년 1인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아 자산의 안전성이 낮고, 우울증 의심 비율도 27.2%, 자살 생각은 13.9%로 노인층 1인가구(10.9%)나 청년층 1인가구(4.7%)보다 고립과 빈곤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 문제도 심각함. 이들은 TV 시청, 휴식, 집안일 등의 소극적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으며, 근거리 네트워크 또는 느슨한 생활공동체를 희망함.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베이비붐 세대이고, 남아있는 삶이 상대적으로 긴 중년 1인가구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사회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음.
- 실버 싱글인 고령 1인가구는 빈곤율이 높음. 60대 이상 1인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층이 76.65%. 3개 이상의 복합질병을 앓는 비율이 55.9% (「2014노인실태조사」)로 일상 생활 수행이 어렵지만,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함. 사회적 단절도 심해서 독거노인의 41%는 친한 친구가 전혀 없고, 16.9%는 1명에 불과함. 주로 가정에서 TV 시청으로 소극적 여가를 보냄.
- 노마딕 싱글인 청년 1인가구, 불안한 독신자 장년 1인가구, 실버 싱글인 고령 1인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음. 김석호에 의하면, 이들의 소비는 보건 의료비 혹은 주거비에 집중되며,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구매력이 거의 없음.
- 소비 트렌드는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문화 및 예술적 취향을 가진 30~40대 골드 싱글 세대에 맞춰져 있음. 기업의 관심도 이들에 초점을 맞춤. 작업실을 겸하는 스터디 카페와 공유 오피스, 사무실과 주거를 통합한 공유 주택, 취향을 매개로 하는 클럽이 성황 중임. 소득 수준이 낮은 1인가구는 트렌디한 서비스를 이용할 구매력이 없음. 이들에게는 공공의 지원이 필수적임.
- 취약한 거주지에 살고, 문화, 예술, 교육에 쓸 수 있는 구매력이 매우 낮으며,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1인가구는 도서관이 무료로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가 유용할 수 있음.

- ① 독서 및 휴식 공간 이용 ② 도서 대출 및 희망 도서 신청 ③ 요청하는 주제에 대한 도서 정보 취득 ④ 교육 프로그램 참여 ⑤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⑥ 독서 모임 참여 및 모임 공간 이용 ⑦ 컴퓨터와 프린터 등 전자매체 이용 ⑧ Wifi 이용 ⑨ 흑서기와 흑한기 대피 ⑩ 지역의 복지, 문화, 예술 정보 취득

- 장년과 노년층은 아동 청소년기에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이용해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임. ‘독서실’, ‘학습실’로서의 도서관만을 경험했을 경우에도, 현대의 도서관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상상하기 어려움. 즉, 시민으로서 쾌적한 공간에서 머물고 배우고 즐기며,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도서관을 생활 속 ‘선택지’로 생각하지 못함. 현대의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거리감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작은도서관은 마을 곳곳에 위치하고, 운영자는 공공도서관과 달리 잦은 이동 없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기에 지역의 사정을 알기 쉬움. 아파트 도서관처럼 지역의 거주민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좋은 마을을 만드는 혜택이 자신에게도 돌아가기에, 마을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임.
- 현재 공공도서관은 사서 대비 서비스 대상자가 많고, 도서관의 아웃리치 서비스를 전담하는 사서를 별도로 두기 어려운 상황임. 잦은 이동으로 같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평균 기간 높지 않음. 작은도서관은 거점도서관의 아웃리치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은 취약한 거주환경에 사는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서재이자 거실, 공유 오피스의 역할을 할 수 있음. 마을에서 느슨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생활공동체를 원하는 장년 1인가구와 사회적 단절이 심한 교통약자인 고령 1인가구에게는 ① 독자개발 ② 느슨한 사회적 네트워크 ③ 1인가구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3) 저출생

- 급격히 달라지는 인구와 사회의 변화에는 ‘대비’와 ‘기획’이 동시에 필요함. 고령 교통약자의 증가, 고령 1인가구의 증가에 ‘대비’해 생활권 내 도서관의 필요하다면,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획’의 차원으로 작은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통계청의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아 수는 2021년 260,562명,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임. 출생아 수는 1970년 101만 명에서 조금씩 감소하다가, 1983년~2000년까지 60~70만 명대로 하락 후 유지되었음. 2000년대 들어 다시 급감하여, 2001년 56만 명,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약 15년간 40만 명대를 유지함.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0만 명대로 다시 하락했고, 가장 최근의 통계인 2022년에는 24만 9천 명으로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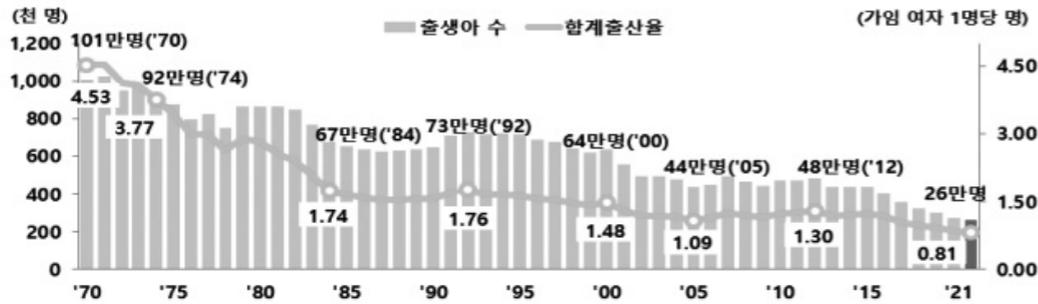


그림 3. 출생아 수 추이와 합계출산율 추이 (출처: 통계청, 「2021년 출생통계」)

- 1990년대 작은도서관의 태동기, 80~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의 인구는 출생아 수가 매년 60~70만 명이었음. 인구구성비율로 보면, 만 0-14세 미만 인구가 총인구의 34% (1980년대), 25.6% (1990년대)였음.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부족했고 도서관의 어린이실은 부재했던 시기,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와 그 가족을 위한 샘플 같은 책 공간으로 환영받았음.
- 이미 저출생으로 인해 산부인과, 신생아와 영유아, 초등교육 관련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고, 종사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1~2030 중기교육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원은 2030년까지 3~4만 명 감축될 것으로 전망. 입학생 축소로 인해 대학의 정원 감축, 학과 축소, 폐교도 이미 시작되었음.
- 2020년 만 0-14세 미만 인구는 총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2030년부터는 한 자릿수, 8%대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됨. 늘어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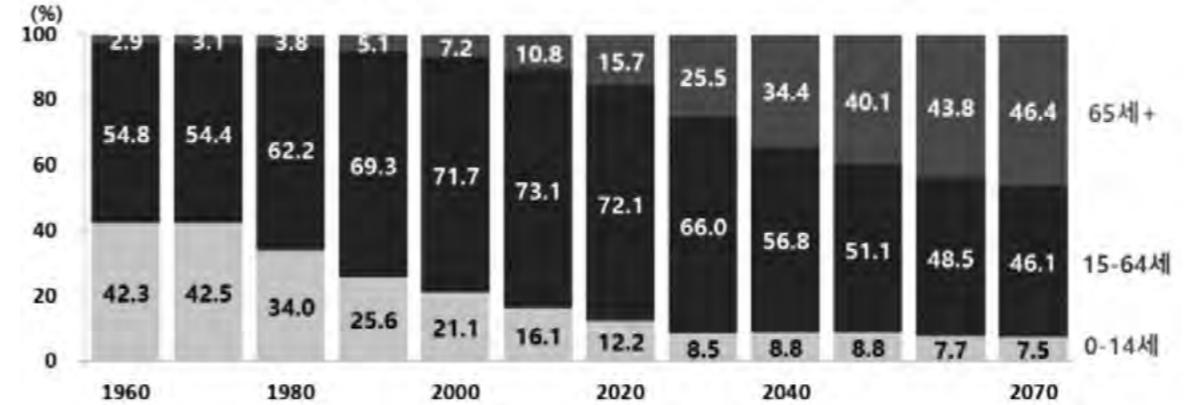


그림 4. 연령계층별 장래인구 추계 (출처: 통계청)

고려하면, 어린이와 그 가족이 누릴 수 있는 책 공간은 비교적 풍부한 상황임. 공간별 어린이와 어린이 가족 방문자 수는 월등히 줄 수밖에 없음.

- 사기업은 저출생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만 3세 이하 신생아 관련 산업을 축소하거나 고급화함. 2019년 산업연구원의 「국내 키즈콘텐츠시장의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유아용품 시장은 2009년 1조 200억 원에서 2015년 2조4천억 원으로 두 배 성장했고, 2019년은 4조 원대로 성장. 출생아 숫자는 2009년 44만 명에서 2019년 30만 명으로 14만 명이 줄었음에도 유아용품 시장은 3배 이상 증가함. 영유아 부모들은 신생아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구하기 어렵거나, 예전보다 훨씬 더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가족과출산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 (15~49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1순위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15.3%), 공동 2순위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14.8%), 자녀 양육비용 부담 해소 (14.8%)로 나타남. 주목할만한 점으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비용 부담 해소를 1순위로 선택함.
-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인구, 미래, 공존: 정해진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영유아 시장의 인플레이션과 독과점은 높은 육아 비용을 낳고, 이는 다시 저출생으로 이어지기에, 영유아 대상의 산업에서는 시장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조.(141쪽) 당장 영유아의 숫자가 적고 앞으로 더 줄어들더라도 양육과 관련된 제품, 시설, 서비스에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장.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공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

- 결혼적령기가 없어지고 만혼도 늘어감에 따라 양육자의 구성도 다양해지고 있음. 산모의 연령대가 20대부터 40대까지 폭 넓게 퍼져있으며, 조부모 육아, 한 부모 육아, 다문화 결혼, 입양 등 가족의 구성방식도 다양함.
- 도서관은 영유아 가정을 위해 북스타트를 무료로 운영함. 북스타트는 사회적 육아 지원 운동으로, ① 영유아를 위한 도서 선물 ② 양육자를 위한 육아 및 가정의 책 읽기에 대한 자료 제공 ③ 육아 및 책 읽기와 관련된 강의와 워크숍 제공 ④ 육아 모임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 ⑤ 마을의 영유아와 부모의 책 읽기를 돕는 활동가를 양성함.
- 2022년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72%가 북스타트에 참여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19년 7월 기준, 구립공공도서관 123개, 공·사립작은도서관 347개, 교육청도서관 16개, 유관기관 529개에서 서울형 북스타트를 실시했음.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약 3배 가깝게 참여함(‘서울시, 영유아 맞춤형 북스타트 시범사업 추진, 연합뉴스 2019년 7월 16일 자).
- ‘북스타트한국위원회’(현 북스타트코리아)가 창립되었던 2002년부터 북스타트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민간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의 기여가 매우 컸음. 어린이 전용 기적의 도서관의 공간 및 서비스는 민간어린이도서관에서 모델을 차용했으며, 제주에서 민간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던 허순영 관장이 제1호인 순천 기적의 도서관 관장을 맡음. 북스타트 프로그램을 경험한 양육자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자발적으로 육아 커뮤니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작은도서관은 0~3세의 영유아의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최고의 접근성을 가진 무료의 도서 및 공동 육아 문화공간으로, 고비용의 영유아 대상 문화센터나 도서 서비스의 공적 대안이 될 수 있음.

4) 길어진 은퇴 이후의 시간, 많아지는 은퇴자 수

-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남아있는 생의 기간이 늘어남. 기대수명은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임.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1991년 72.1세, 2015년 82.1세, 2021년 83.6세로 높아짐.
- 2021년 기준으로, 법정 정년인 60세의 기대여명은 평균 26년(남자 23.5년, 여자 28.4년)임. 기대여명은 장래 생존할 것으로 기대하는 수명을 의미함. 정년 이후에도 평균 26년을 살게 됨.
-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제도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2022년 49.3세로 퇴직자의 40%는 비자발적 이유로 실업한 것으로 조사됨. 노동시장에서 실제 은퇴하는

연령은 2022년 기준 72.3세로, 퇴직 후 20여 년 동안 근로환경이 떨어지는 임시직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늦은 은퇴 연령임.

- 인구학자 조영태는 한국의 세대를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함. 이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은, 세대 구분 명칭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베이비붐 세대 1세대와 2세대임.

출생연도가 1955~1964년인 베이비붐 1세대는 대부분 60대로, 2024년이면 모두 법적 은퇴 연령임. 2025년부터는 1965~1974년생인 베이비붐 2세대의 은퇴가 시작됨.

	산업화 세대	베이비붐 1세대	베이비붐 2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출생연도	1940-1954	1955-1964	1965-1974	1975-1984	1985-1996	1997-
역사적 사건 (주로 유년기)	한국전쟁, 베트남전	새마을 운동	민주화 운동	대중문화 시대	올림픽	월드컵
인구 사회학적 특성	실버산업 세대	센서스 시작 합계출산율 5~6 대학 진학률 20%대	가족계획 이후 세대 합계출산율 3~4 대학 진학률 30%대	수능 세대 여성 교육수준 급상승 자녀 수 감소 본격화 대학 진학률 급증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대학 진학률 80%대 (여성)남성	IMF 외환위기 가구분화 증가 초저출산

표 3. 한국의 세대 구분 (출처: 조영태, 『인구, 미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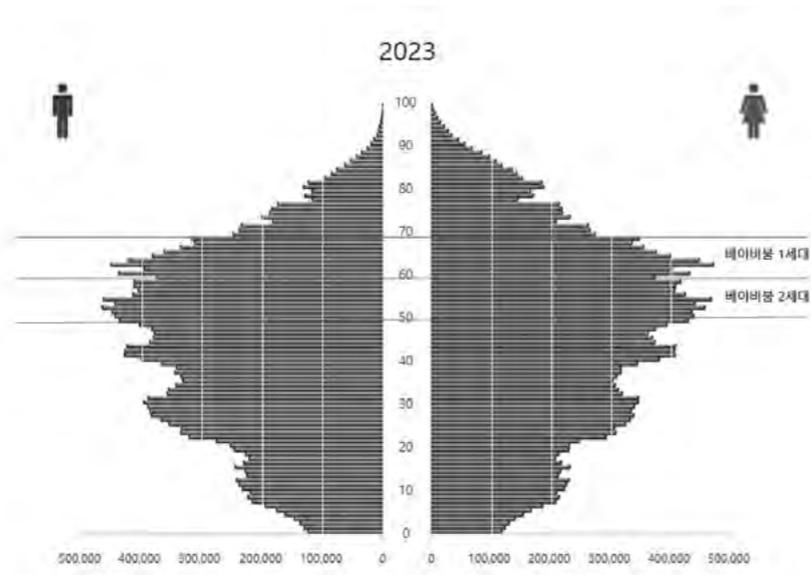


그림 5. 인구의 연령별 구성 (출처: 통계청)

- 한국의 연령별 인구 구성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베이비붐 1세대는 지난 9년간 매년 최소 65만 명(1956년생)에서 최대 92만 명(1961년생) 법정 정년을 맞았음. 베이비붐 2세대의 인구는 좀 더 많아서, 향후 11년간 매년 최소 81만 명(1967년생)에서 최대 93만 명(1969년생)의 은퇴자가 생겨남.
- 향후 10년간, 은퇴자는 매년 80~90만대가 쏟아지고, 이들은 평균 26년의 여명을 살 것으로 예측. 은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퇴자 개인으로는 은퇴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과 삶의 질이 문제로 떠오름. 은퇴 후에도 노년의 자신뿐만 아니라 여명이 길어진 이들의 부모 세대를 돌보아야 하는 부담도 깊어짐.
- 사회적으로는 국민연금 등의 연금제도와 건강보험과 요양제도, 고령자 대상의 복지 서비스(무임승차 서비스 등)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함. 유권자로서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기에 복지를 감당해야 하는 후속 세대와의 갈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큼.
- 수명이 늘어도 후속 세대의 인구가 종형으로 유지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스웨덴 등의 서구 국가들과 달리, 향후 연금으로 노후를 의탁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가능성이 큼.
- 현실적인 노후준비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생산성을 유지할 필요.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① 미래의 변화에 기준을 두고 자신의 역량을 경험과 함께 늘려가도록 배우기 ② 변화된

지식과 과학기술 익히기 ③ 변화된 가치관과 인권의식 (차별에 대한 감수성,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 동물권 등)을 갖추어야 함.

- 영국의 사회철학자 피터 래슬릿은 서드에이지(the third age)라는 새로운 인생 단계를 제안함.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청소년기의 개념이 발명된 것처럼, 수명이 길어진 지금 60~70대를 중년과 노년 사이인 제 3연령기로 명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명견만리』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일본, 유럽, 미국의 서드에이지를 소개함. 이들은 특히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NPO)인 제3섹터에서 시니어 NPO 활동가로 활약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 설립한 NPO만 약 2만 개가 활동하고 있음. 이 단체들은 지역사회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교육, 시니어클럽, 평생교육과 문화활동, 해외봉사, 돌봄, 젊은 층의 업무보완 등의 활동을 전개.(94~127쪽)
- 60대에 들어서고 있는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는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본격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한 세대로, 연령당 인구가 약 90만 명 중 30%, 약 30만여 명이 대학에 진학했음. 산업화 세대의 은퇴자와는 달리, 이들은 학습과 성장, 자기개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열정이 높음. 또한 가치관 형성기에 대통령 직선제 등 정치적 변화에 성공한 집단적 효능감을 가지고 있음.
- 정지원 외, 『뉴그레이』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시니어는 과거의 산업화세대와 비교하여 다음의 특성이 더 두드러짐.
 - ① 개성을 추구하고 이를 표현하고 싶어 함. 기존에 주어진 노인의 이미지로부터는 탈피하되, 젊음을 모방하거나 나이든 자신을 부정하는(Anti-aging) 방식이 아니라, 나이든 자신을 긍정하고 주체성을 찾으며 노화에 차별적이지 않음(Ageless)을 추구함. 그러나 시장에서도 사회적 모임에서도 선택의 폭이 좁다고 느낌.
 - ② 인간관계에서 가족과 친구를 넘어선 새로운 연결을 원함. 자식이나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권위를 벗어난 어울림을 추구하고, 다른 세대와 함께 조화롭게 어울리려 함. 대가족의 어른으로서의 시니어가 아닌 1인가구의 시니어로 대안 가족 (예를 들어 반려동물 가족, 1인 시니어 가구의 세어하우스, 핀란드의 로푸키리와 같은 자발적 주거공동체 등)을 희망함. 길어진 노년을 수동적인 돌봄의 수혜자로만 살기보다 주체적인 상호돌봄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 함.
 - ③ 안목과 취향, 스타일을 가진 개인으로 취향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갖고 싶어 함. 음악, 미술, 공연, 예술, 스포츠, 여행 등을 함께 하는 공동체를 추구함. 온라인에서는 커뮤니티를 찾기 쉬우나,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선택지가 좁다고 느낌.
 - ④ 학습과 성장의 욕구가 큼.

- X세대(1975-1984)의 정년이 시작되는 2035년부터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 은퇴자의 비율이 74%,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은퇴자 비율이 36%가 넘을 전망이다.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퇴직 인구의 비율은 계속 높아져 밀레니엄 세대에는 89%까지 육박함.
- 사교육을 통한 학습이 아닌 공동체의 학습(독서회, 세미나, 동호회 등)을 통해 스스로와 사회를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전후로 배움과 학습, 친교를 주체적으로 지속해간다면, ① 개인적으로는 경제활동 역량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고, ② 사회적으로는 후속 세대의 부양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음. 경제활동이 아니더라도, 고령자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 할수록 사회적 복지비용이 낮아짐.
- 이웃과 교류하고 서로 돌보며 자원봉사를 하는 은퇴자는 복지의 수혜자로만 존재하지 않고, 지역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복지의 제공자로 존재할 수 있음.
- 매년 80~90만 명씩 쏟아지는 베이비붐 은퇴자들은 노인정보다는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 가치관을 배우고, 다양한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도서관이 필요함. 도서관은 은퇴자들을 위한 새로운 학교가 되어야 함. 초등학교처럼 가까운 곳에서, 대학교처럼 자신의 배움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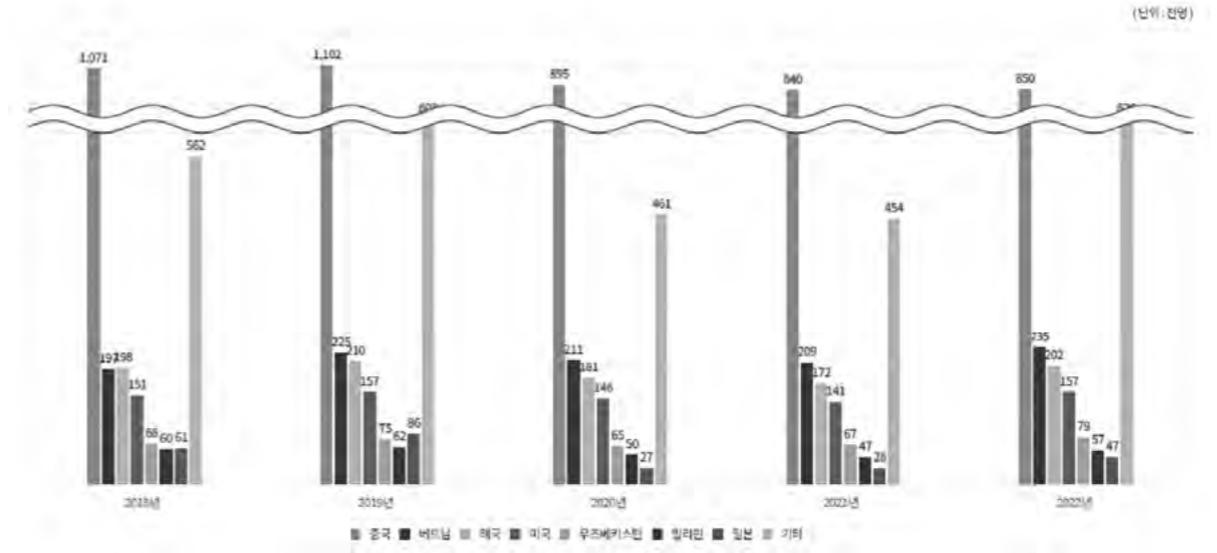


그림 6. 연도별 주요 국적별 외국인 현황 (출처: 법무부)

5) 이주민의 증가

- 조영태에 따르면, 2021년 2608만 명이던 생산인구(25~59세)는 2031년이면 2293만 명으로 줄어들어, 총인구 비율로 보면, 2028년부터 생산인구가 50% 이하로 내려가게 되고 2030년대부터는 매년 급격히 하락함.
- 고령화와 초저출생 문제로 생산인구의 절벽을 경험한 미국 및 서유럽국가들은 젊은 이민자의 유입을 통해 생산인구의 부족분을 채움.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의 노동력은 섬유·의류, 농·수산업, 식품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대학산업 등에 포진. 한국도 2006년 1.1%(약 54만 명)였던 이주민의 비율은 2009년 2.2%(약 111만 명)로 두 배인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 3.4%(약 171만 명), 2022년 4.37%(약 225만 명)로 증가세임.
- 인구대비 체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245,912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37%를 차지. 이 가운데, 장기 체류 외국인은 1,688,855명, 단기 체류 외국인은 556,057명임. 유학생은 197,234명, 취업자격 외국인(전문인력+단순 기능인력)은 449,402명, 결혼이민자는 169,633명임. 영주자격자(F-5)는 176,107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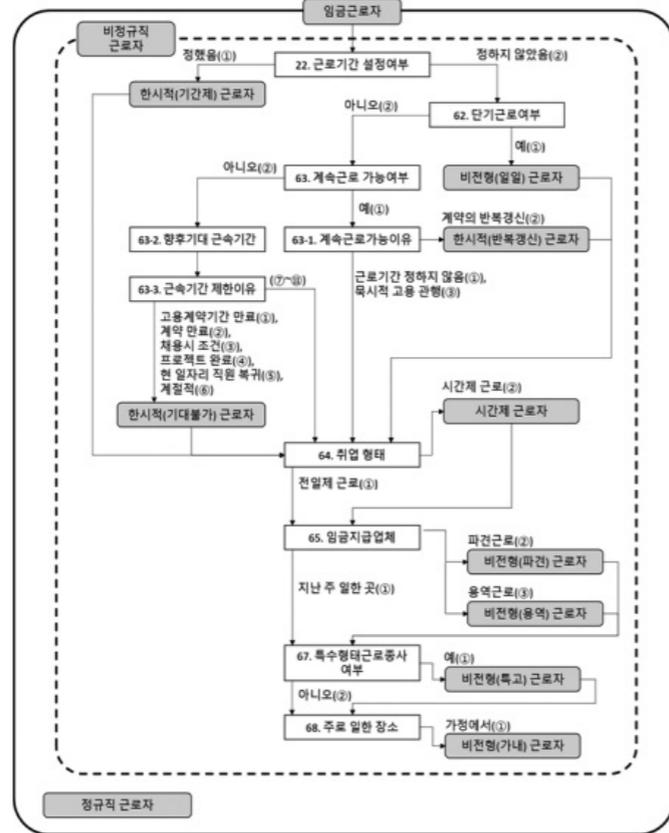
- 저임금, 비인간적 생활환경, 비인권적 처우, 이주민을 위협한 존재로 여기는 외국인 공포증(Xenophobia), 이슬람교나 힌두교 등 종교에 대한 차별, 노동시장 내 내외국인 충돌 등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과제가 산재함.
- 이주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작은도서관인 안산다문화도서관과 모두도서관 등에서 성공적으로 실험되었음.

2. 비대면의 확대

1) 다양한 고용과 업무형태, 확대된 집과 동네의 역할

- 한국의 임금노동자의 노동형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며, 비정규직은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일일) 근로자로 구분됨.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됨.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로 구분됨.

〈근로형태별 임금 근로자 구성 및 조사흐름도〉



주 : 1) 근로형태 구분 흐름도는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지침서(2022)의 조사흐름도를 바탕으로 각 근로형태의 집계 방법을 적용하여 구분한 것으로 설문조사의 흐름 순서와는 일치하지 않음.
2)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근로자임.
자료 : 통계청(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지침서」.

그림 7. 근로 형태별 임금 근로자 구성 및 조사흐름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지침서」, 2022.)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의 근로 형태는 2022년 8월, 전체 임금노동자의 62.5%가 정규직이고, 37.5%가 비정규직임. 비정규직 노동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0.6%, 여성 임금노동자 중에는 46%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음.

(단위 : %)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 정규직	한시적 근로	기간제	반복 갱신	기대 불가	비전형 근로	파견	용역	특수 형태 근로	가정 내 근로	일일 근로	시간제 근로
2015	4.6	4.9	4.0	3.9	4.1	4.4	2.4	3.9	7.7	1.0	10.2	17.2	0.3	4.2
2016	4.2	4.9	2.7	3.0	3.2	4.9	0.8	2.1	1.4	1.3	5.4	13.6	0.2	2.5
2017	5.2	5.9	3.8	4.2	4.2	6.3	0.8	3.2	3.5	0.8	9.8	20.3	0.1	2.8
2018	8.4	9.9	5.2	6.2	5.9	12.2	1.0	4.3	4.4	1.8	10.7	28.2	0.0	3.8
2019	10.8	13.3	6.4	7.0	6.5	13.2	2.0	4.9	6.0	2.4	13.0	7.0	0.4	5.3
2020	14.2	17.8	7.9	8.7	9.3	12.1	1.8	6.7	8.8	4.3	18.8	11.0	0.2	5.4
2021	16.8	21.5	9.4	10.8	11.1	14.6	5.0	7.5	6.9	4.0	21.3	8.8	0.9	5.8
2022	16.0	20.2	9.0	10.1	10.6	10.7	2.6	7.2	6.4	2.4	20.7	11.1	0.0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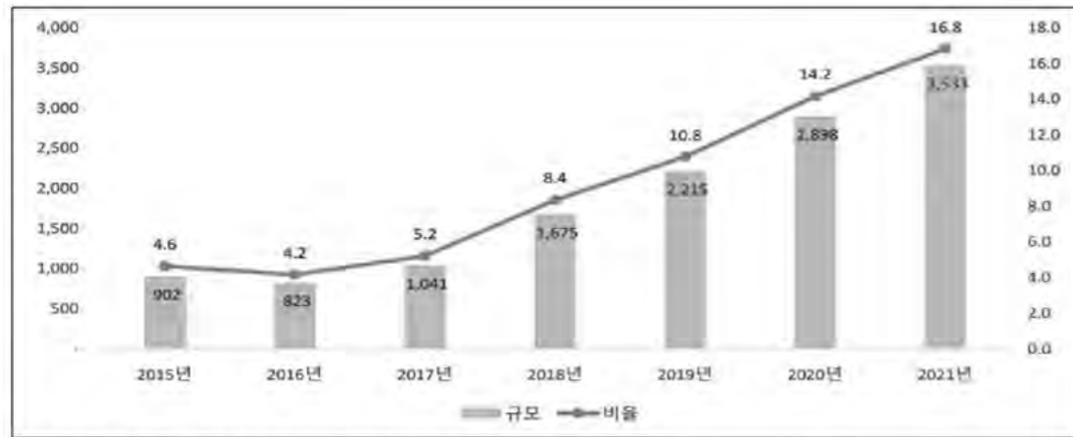
주 : 유연근무제 활용 비율은 주된 직장(일)을 기준으로 하며 각 근로형태를 전체로 한 비중임. 예를 들면, 2022년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16.0%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였음을 뜻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표 4. 근로형태별 유연근무제 활용자 비율 추이 (출처: 「2022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 한국노동연구원의 「2022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2022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6%를 차지함. 유연근무자의 비율은 2015년 4.6%, 2020년 14.2%, 2022년 16.0%로 점차 확대됨.
- 유연근무제의 활용 유형은 시차출퇴근제¹(31.7%), 재택 및 원격 근무제²(27.5%), 탄력적 근무제³(27.9%), 선택적 근무시간제⁴(24.8%), 근로시간 단축근무제(11%)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재택 및 원격근무제의 비율은 2018년 4.7%에서 2021년 32.3%로 가장 급격히 늘어남. 재택 및 원격근무제를 활용하는 직업별은 전문가(42.1%), 사무직(39.5%), 관리자(38.6%), 판매직(21.6%)로 주로 화이트 컬러 노동자임.

1 시차출퇴근제란 1일 소정노동시간 내 개인별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2 재택 및 원격근무제란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원격 근무용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3 탄력적 근무제란 일이 많은 시기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적은 시기의 노동시간을 줄여 소정노동시간을 맞추는 제도로 노동일과 노동시간 대가 정해지면 모든 노동자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근무하는 제도
4 선택적 근무시간제란 1인 소정노동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당 소정노동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노동자 중 희망자의 비율은 점점 높아가고 있음. 2022년 기준, 유연근무제를 현재 활용하지 않는 임금노동자의 45.2%가 유연근무제를 희망함. 이 가운데 정규직은 54.2%가 비정규직은 32.1%임.
- 근무의 공간과 시간이 다양해지려면, 노동자의 디지털 활용능력,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과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화상회의와 같은 통합업무관리 도구, 유연근무를 지원하는 근로계약서 등의 법적 규제, 원격 근무 방식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 코로나로 인해 한국은 약 2년 만에 원격근무가 가능한 사회적 기술적 조건이 마련됨. 학생과 화이트 노동자들도 코로나의 집단적인 경험을 통해 원격근로의 개인적 역량이 축적됨. 앞으로도 집이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원격근로는 임시가 아닌 일상의 근로 방식의 하나로 정착되는 추세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8. 2015~21년 유연근무제 활용 규모와 비율 (단위: 천명, %)
(출처: 민주노동연구원, 「노동시간 실태분석: 장시간 노동과 유연근무제 현황」, 2022)

- 비정규직이 많아질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상, 일시적인 계약으로 불규칙하게 근무하게 되며, 특히 경제위기나 구조조정의 변화에 취약하여 실업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실업 기간 동안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대폭 늘어날 수 있음.
- 원격 및 재택근무자, 초단기 임시직 노동자인 깃 워커(Gig worker), 반복적인 실업 상태에 놓이는 비정규직이 늘어감에 따라, 거주지 부근에 머무는 인구가 늘어남. 근무, 여가, 휴식을 위한 공간이 집과 거주지 부근에 필요.
- 코로나 봉쇄 기간을 거치면서 소비 활동은 집과 근거리에서 주로 이루어짐. BC카드 빅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거주지 500m 이내 결제 비중이 2018년 25.6%에서 2020년 32.9%로 증가.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짐.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편의점의 판매액은 31조 1947억 원. 같은 기간 동안 대형마트는 34조7737억 원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임. 편의점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 상승 중이나 대형마트는 하강 곡선을 그림. 자동차로 대형마트에 가서 4인 가구의 식료품을 사던 패턴은 1-2인 가구의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근거리 편의점 소량 구입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동네의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업무에 필요한 만남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듯이, 도서관은 학습과 교육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더하여, “업무”의 공간으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음. 제1의 공간인 집과 제2의 공간인 직장이 겹쳐지고, 제2의 공간인 직장이 제3의 공간인 도서관과 겹쳐지고 있음. 거주지 주변에 더 많은 업무 관련 공간이 필요하게 됨.

2) 정보 격차와 디지털 격차

- 송길영은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에서 한국 사회의 최근 20년 동안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향후 10년에 변화의 추이가 확실한 세 가지 상수를 꼽음. 이는 ① 분화하는 사회 ②장수, ③ 비대면임.
- 비대면, 무인화, 자동화는 ①기술의 발달 ②공급자와 소비자의 기술 수용 능력을 조건으로 함. 무인화의 가장 강력한 동력은 비용 절감이나, 관계 맺기에서 비대면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강화됨. 대면에 대한 피로, 전화통화 대신 문자와 챗봇, 키오스크 등 사람과의 관계에 자기 결정권을 높이고자 “선택적 대면”(76쪽)을 선호함.
- 무인화는 생활의 전 영역에서 급속도로 진전 중임. 은행이나 공공기관의 자동화기기, 식당과 카페의 키오스크, 기차, 택시 등의 교통 앱 등 무인화가 확산할수록 대면 서비스의 비용과 시간은 올라감.
- 2023년 3월 리서치 플랫폼 라임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97.8%는 키오스크 주문 경험이 있으나 연령별 선호도에 큰 차이가 있음. 10대는 69.7%, 20대 73.5%, 30대 60.3%가 키오스크를 훨씬 선호하는 반면, 40대는 48.7%, 50대 33%, 60대 35%로 나타나 키오스크 선호도가 낮음. (국민일보, 2023년 3월 27일 자) 특히 60대는 검색/결제 메뉴 조작이 어려움(38.1%), 옆에서 도와주는 직원이 없음(32.8%), 글자 크기가 작아서 불편함(18.5%) 등을 호소.
- 디지털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 선호도에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음.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은 디지털 접근성이 낮고 이로 인한 정보량의 격차도 심해짐.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 스

마트폰 앱,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 등이 대면 서비스와도 결합하기에, 디지털을 쓰지 않으면 대면 서비스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대면 서비스를 받는데 비용과 시간이 더 들게 됨. (예, 카카오택시 앱 이용자와 길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

- 이용자가 다양한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도서관 본연의 업무 중 하나임. 디지털 정보도 여기에 포함됨.
- 책 읽기의 문해력은 20세 이전의 의무교육 기간에 배운 것으로 평생을 쓸 수 있음. 책과 달리 디지털 매체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읽고 쓰는 방법도 다름. 게다가 더 다양한 디지털 도구가, 더 빠르게 개발되고 이용되고 있음. 반면 이를 접하는 사람들의 이해도와 활용능력은 서로 비슷하지 않음. 디지털 문해력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개별화 교육'에 기반을 두게 됨. 특수교육에서처럼, 학습자의 개별적인 수준, 속도, 관심사, 필요에 따른 맞춤형 학습이 기본이 되어야 함.
- 작은도서관에서는 낮은 수준의 필수적인 디지털 매체 활용 교육을 1대1 혹은 소수로 제공할 수 있음. 도서관 관련 매체에만 국한해도, 도서관 서비스 가입, 도서 검색, 상호대차 신청, 전자책 이용, 인터넷 강좌신청, 비대면 강좌와 독서동아리를 위한 줌 활용, 독서동아리를 위한 오픈 채팅방 활용, 도서관 인스타그램을 통한 북큐레이션 안내 등 매우 다양함.

3) 에코 체임버, 민주주의의 위기

- 의견과 생각을 동조하는 이들과의 소통을 위주로 하면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의 의견을 과표 집하여 사회 전체의 의견으로 오판할 수 있음.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사한 생각을 반복해서 접하고 같은 입장의 정보만 수용하는 현상을 에코 체임버, 메아리방 현상이라고 부름. 알고리즘 기술의 향상으로 맞춤형 추천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비대면 사회에서 에코 체임버는 더 강화됨.
- 에코 체임버에 갇힐수록 스스로 생각하기를 거두고, 추종하는 집단의 의견만을 신뢰하며 다른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 인지편향을 갖게 됨. 이는 지나치게 양극화되고 분열된 극단주의를 낳으며, 다양한 의견에 관해 대화, 타협, 토론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위기를 일으킴.
- 다른 상황과 의견을 가진 이들과 우연한 만남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
- 과거에 당연했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때에 따라 부도덕과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변화되고 있는 인권의식과 가치관을 현행화해야 함.

4) 돌봄, 비대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

- 돌봄은 누구나 연루되어 있고, 돌봄과 관련된 일은 코로나 거리 두기 상황에서도 대면 서비스로만 존재했음. 어린이 돌봄, 노약자 및 장애인 돌봄을 비롯하여 보건의료, 환경미화, 복지, 물류, 운송 등의 필수노동이 여기에 포함.
-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인데, 이미 2007년 고령화 사회,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섰고, 2년 후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접어 들. 추이대로라면 2030년이면 고령 인구가 25.5%를 넘어서고, 2040년에는 34.4%, 2050년 40%를 넘어서게 됨.
-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의 돌봄은 비대면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류은숙은 『돌봄과 인권』에서 '시장'과 '가족'에만 의존하여 해결해온 돌봄을 '제도'와 '돌봄의 연결망'으로 넓힐 필요 있다고 주장. 돌봄 공유가 부족할수록 돌봄의 시장화는 가속화됨. 아이 돌봄, 가사노동, 출산, 요양, 사적 기념일, 간병, 요양원 등 돌봄은 가족이 비용을 써야 할 사적 문제가 됨.
- '돌봄의 연결망'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 제공자를 공동체와 제도가 보살피며, 돌봄의 겹을 형성함으로써 가능. 엄기호도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에서 고통을 겪는 이를 돌보는 '고통의 겹'에, 다른 이들이 곁들이 되는 사회를 논함.
- 김찬호는 『대면, 비대면, 외면』에서 비대면은 실상 '비접촉'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 대면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경험이 줄어들면, '외면', 즉 연결되지 않기로 이어지기 쉬움. 외면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되면,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연결 자체를 불편, 무시, 배제, 회피, 부정하기 쉬움.
- "돌봄 의존자나 돌봄자가 불편해하는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누빌 곳은 어디 있을까? 그런 공적 장소가 얼마나 될까. (중략) 공적 장소는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물리적 시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돌봄을 시민 사이의 공통 관심사로 여기고 공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관계를 말한다. 사람의 몸은 일차적 장소다. 서로의 다른 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야말로 공적 장소의 출발점이다." (류은숙, 『돌봄과 인권』, 269-270쪽) 작은도서관은 어린이를 돌보는 부모들의 연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 제공자의 연대를 모색하는 실험실이 될 수 있음.

3. 환경 위기

1) 환경 지표와 삶의 질 변화

- 2023년 3월 13~1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의 6차 종합보고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향후 10년의 해법을 도모하는 195개국 650여 명의 대표단이 승인한 최근 보고서임.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인 2040년 이내에 1.5도 상승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전 세계의 국가와 도시는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기 시작했음. 해수면의 상승과 폭염, 폭설, 폭풍우와 가뭄, 산불, 공기 오염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짐. 이로 인해 수도와 전력 통신의 중단, 의료시설의 마비, 주택의 침수와 고립, 오물과 쓰레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식량과 에너지를 놓고 전쟁과 분쟁 위험도 커짐.
-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상승을 1.5도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이 넷제로(Net Zero) 즉 순 배출량이 0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상당 수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함.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의 가구는 34~45% 소비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하위 50%의 가구는 13~15%의 소비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음. 소비기반 온실가스는 직접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기준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임. 즉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경제 선진국의 책임이 매우 큼.
- 교통은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시민의 이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낮추기 위한 제안으로 ① 직장 및 주거지의 근접성을 높이고 ②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와 도보 등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도로를 무동력 도로로 개편 ③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 인프라를 지원하는 도시설계가 필요함.
-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로 전통적인 인프라스트럭처(댐, 방파제, 홍수 방지 시스템, 빗물 재활용 시설 등)에만 초점을 맞추던 접근법에서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도서관, 공원, 학교, 놀이터, 공동체 텃밭,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중요성이 대두됨.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인 에릭 클라 이넨버그는 그는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에서,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질병과 부상을 가지고, 빈곤한 이들일수록, 폭력과 범죄, 자연재해 (폭염, 폭설, 폭우, 태풍, 미세먼지) 등의 척박한 주변 여건 속에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집에만 틀어박혀 고립” 되는 것이라 설명. 또한 시카고 폭염으로 인한 739명의 사망자를 분석한 『폭염사회』에서, 같은 재난

속에서 심지어 같은 빈곤층 내에서도 고립된 이는 재난의 희생양이 되기 쉽고, 사회적으로 연결된 이들은 재난을 더 잘 견딜 수 있음을 밝혀냄.

-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공원과 도서관 등의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는 기후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위기의 전후, 시민 간의 연결을 촉진하는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기능함. 거리가 멀어져 근접성이 낮아지면, 교통약자는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어렵고, 이동 비용이 발생하며, 사회적 연결망도 구축하기 어려움.
- IPCC 보고서에서 밝히듯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소비기반 온실가스는 주로 상위 소득계층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는 소득 하위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줌. 소득 상위계층은 전기소비와 자동차 이용, 거주지 변경과 같은 다양한 선택을 통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 하위계층은 선택지가 한정되어 있어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움. 소득 상위계층이 기후위기의 고통을 완화하는데 사적으로 쓰는 에너지는 다시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초래하고 이는 더 극심한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고통의 양극화를 촉진할 수 있음.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기여가 적은 시민이나 계층, 국가에 기후변화의 결과가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기후 정의를 추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공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행동이 필요함.
- 모든 시민은 기후 및 환경 리터러시를 갖추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역사적으로 도서관은 리터러시, 즉 읽고 쓰는 능력의 보존과 확산, 평생교육에 기여해왔음. 근미래에 환경 리터러시는 모든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역량이 되어야 함. 환경 리터러시는 기후와 환경 문제를 일상생활 속에서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실천하며, 선거와 투표, 참여를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임. 아동기 교육과정에서부터 환경 리터러시를 배우고 익히지 않은 성인 세대를 위해 도서관은 환경 리터러시의 교육장이 될 수 있음.

2) 탄소 중립 도시, 파리의 <15분 도시 백서>

- 파리의 시장 이달고는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를 선언하며, 도시민이 무동력 이동수단을 통해(도보, 자전거 등)으로 15분 내로(교외와 도농복합지역은 30분 내)에 자신이 필요한 도시의 핵심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 여기서 필수기능은 거주, 업무, 생활서비스공급, 건강, 교육, 번영 등의 6가지임.
- 특화된 용도의 단기능형 공간(상업, 주거, 업무, 교육, 의료, 레저 등)으로 나누어진 도시계획은 다기능형 다핵도시(동네마다 여러 기능을 하는 공간이 모여있는 형태)로 전환. 필수기능을 하는 곳이 초근접 거리에 있기에, 도시 내의 이동은 자동차가 아닌 도보와 자전거, 공유이동수단으로 가능하도록. 자동차 도로와 주차장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공원과 녹지, 공유오피스, 도시농업, 복합화된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



자료: Anne Hidalgo, 『Le Paris du quart d’heure』, 2020.

그림 9. 파리의 15분 도시 (출처: 파리기업행정연구소(Chaire-ETI), 『15분 도시 백서』)

-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 자동차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기의 질을 높임. 통근을 위해 업무지구로 멀리 이동하거나 자연을 향유하기 위해 도시를 탈출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는 빈도를 낮출 수 있음. 필수기능에 닿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
- 직장과 주거가 근접함으로 상업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의 소비력이 갖추어짐. 바이 로컬은 포장과 물류를 줄임. 디지털로는 연결되어 있으나 생활 세계에서 고립된 시민들의 우연한 만남과 사회적 연결을 촉진함.
- 도서관은 6가지 필수기능 중에 교육과 번영 기능에 필수적임. 초근접거리에 6가지 필수기능을 위치시키기 위해서 건물이나 공공시설 단위로도 기능을 혼합할 필요가 있음. 다목적성을 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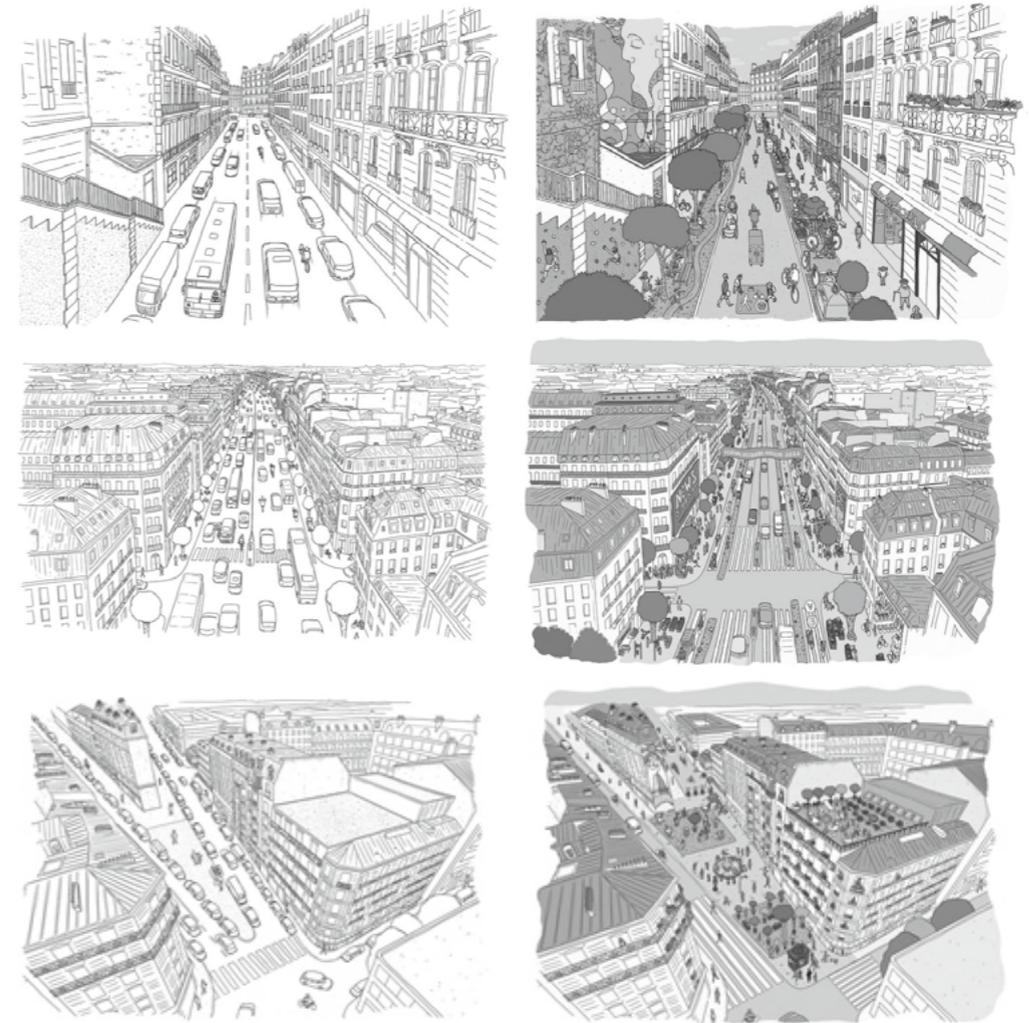


그림 10. 15분 도시 전후 비교 (출처: <https://www.nicolasbascop.com/nouveau-projet-1>)

건물로 기능혼합을 추구하면 시설의 용도를 최적화하고 마을의 잠재력을 다양화할 수 있음. 시설의 냉난방을 효율화하는데도 도움이 됨. 지역 내에 누락된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편재성을 해소할 수 있음.

- 한국은 통근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김. OECD, 「OECD Family Database」(2016)에 의하면, 한국은 직장과 집을 오간 왕복 시간이 평균 58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28분보다 두 배 이상 김. 통근을 위한 탄소 소비량도 이에 비례함.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살펴보면, 평균 1시간 이상 통근에 사용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1995년 9.6%에서, 2010년 15.6%, 2015년 22.5%로 많이 늘어남.

있음. 거주지의 15분 안에 공원, 공유 오피스, 상가, 학교, 운동, 병원, 도서관 및 문화공간에 닿도록 도시를 재설계. 자동차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늘리며,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공유자동차)의 사용을 촉진함.

통근시간별 통근인구와 평균 통근시간

[단위: 천 명, 분/일]

		2000	2005	2010	2015	2020
통근시간별 통근인구(천 명)	전체	17,198	17,983	21,571	23,500	23,285
	15분 미만	5,154	5,621	5,472	5,794	5,118
	15-30분	4,417	4,691	6,169	6,035	6,162
	30-45분	4,548	4,369	5,929	6,383	7,104
	45-60분	595	602	727	1,055	1,334
	60-90분	1,838	1,815	2,411	3,159	2,602
	90-120분	452	455	690	762	927
	120분 이상	201	160	294	312	41
평균 통근시간(분/일)		28.4	27.5	29.6	31.2	30.8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주석: 1) 통근인구는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집과 직장을 오가는 인구임.

표 5. 통근시간별 통근인구와 평균 통근시간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 C40 그룹은 세계 94개 도시 중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96개 도시가 참여하는 국제도시 연합체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서울도 포함되어 있으며, 2023년 2월, 오세훈 시장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이자 C40 부의장으로 선출됨. 탄소 제로를 위한 도시설계와 운영에 책임이 있음. 부산과 제주도 15분 도시를 표방함.
- 캐나다 오타와, 15분 동네 (15-minute neighbourhood), 호주 멜버른 20분 동네 (20-minute neighbourhood), 스페인 바르셀로나 슈퍼블록 (Supermanzanas), 미국 포틀랜드 20분 동네 (20-minute neighbourhood) 등 많은 도시가 N분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미래 작은도서관의 역할

-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다루어진 근미래에 다가올 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작은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탐색함. 근미래의 변화는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도서관은 변화의 불확실성과 문제에 대응해야 함. 이 장에서는 특별히 그물망처럼 분산되고 연결된 작은도서관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할을 밝히려 함.
- 제2장에서 살펴본 근미래의 변화들, 즉 인구변화, 비대면, 환경 위기는 각기 고유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중첩될 때 문제가 증폭됨. 예를 들어, 노인 1인가구는 디지털 접근성이 낮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혜택(예,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1인가구 포털)에 접근하기 어려움.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가 미세먼지나 폭염과 같은 악조건을 만나면 먼 거리의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움. 비대면이 퍼진 사회에서 저출생으로 형제자매가 없는 아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대면으로 소통하고 신체로 놀이하는 기회가 제한됨. 다른 연령, 종교, 인종, 국적, 계층, 신체에 대한 대면적인 친교가 부족하면서 비판적 문해력을 갖지 못하면, 타자를 대상화하는 혐오 발언에 휘둘리거나 에코 체임버에 갇힐 위험이 있음.
-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은 작은도서관을 ① 접근성 높은 동네도서관, ② 책 문화 사랑방, ③ 마을공동체 거점, ④ 지역 활동가의 성장공간, ⑤ 사회안전망으로 개념화함. 21세기 도서관이 책과 정보의 저장소가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허브이자 문화공간으로 발전하면서, 작은도서관과 비작은도서관의 활동에 교집합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본 장에서는 작은도서관이 가진 위의 특성들이 근미래의 변화 및 문제들과 만날 때 어떻게 차별화된 강점이 될 수 있을지 설명함.
- 작은도서관은 근미래의 문제들에 대해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파트너십을 이루는 도서관 관계에 공헌하고 시민들의 삶을 향상할 수 있음. 연구자는 근미래 작은도서관이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다음의 4가지로 제안함. ① 도서관들의 실험실 ② 아웃리치 서비스와 독자개발 ③ 미시(微視) 커뮤니티 도서관 ④ 교통약자의 도서관. 위의 네 가지는 작은도서관만 배타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라기보다, 작은도서관이 보다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임.
- 개별 작은도서관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특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음. 특정한 장르나 주제, 대상에 맞추어, 도서관의 책과 정보자료, 북큐레이션, 참고서비스, 공간의 구성, 프로그램과 모임, 작가와의 만남, 협업 기관을 선택적으로 구성함. 책의 장르별로 (그림책, 그래픽노블, 시, 과학, 사회과학, 역사, 문학, 인문학, 예술, 장르소설 등), 주제별로 (환경, 인권, 평화, 음악, 미술, 영상, 공예, 동물, 지역사회, 회복적 정의, 생활 정치, 미디어 등), 대상별로 (어린이, 프리틴,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느린 학습자,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환자 등) 특화된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음. 특화된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실험, 아웃리치 서비스와 독자개발, 커뮤니티 형성은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활동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는 개성적이며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1. 도서관들의 실험실

- 현재 공공도서관과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보편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콘텐츠는 작은도서관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먼저 실험한 경우가 많음. 작은도서관은 과거로부터 수행해온 “도서관들의 실험실” 역할을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음.
- 앞 장에서 서술한 대로,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이용자 인구, 비대면의 확산, 기후로 인한 재난과 재해가 복합적으로 야기하는 문제는 한국 사회가 체험한 적이 없는 조건임. 변화가 상수인 시대, 특히 빠른 변화가 상수인 시대에는 창의적인 사회적 실험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짐.
- 다양한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을 가진 대안학교의 성공적인 실험들이 몇 년 후 일반 학교에 전파되었듯이, 작은도서관의 실험들은 도서관계에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음. 작은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도서관들의 실험실로 최적화되어 있음.
 - ① 작은도서관은 소규모 조직의 특성상 의사결정 과정이 민첩함.
 - ② 운영자와 자원활동가의 자발성에 크게 의존하여 운영되기에 개인의 아이디어와 창의성, 참여가 장려되는 분위기임.
 - ③ 자원활동가가 가진 다양한 교육적, 직업적, 문화적 전문성은 사서가 홀로 기획하고 운영할 때보다 다각도의 관점과 문제 해결력을 가질 수 있음.
 - ④ 자원과 예산의 제약은 역설적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원동력이 되고, 실패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
 - ⑤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잦기에, 실험 후 피드백을 빠르게 수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연성이 높음.

“동아리도 하고 축제도 하면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책 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나? 큰 도서관에서는 관장님이 누군지 알기도 어려웠는데, 작은도서관에서 관장님처럼 별 것 다 해봤어요.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이랑,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는 어른들끼리.”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6년 차 인터뷰)

“코로나 때 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있었잖아요. 밴드에 신청받아서 몇 명씩 2시간 쓸 수 있게 신청받았어요. 좁은 집에 있다가 숨통이 트인 것 같다는 가족들, 친구랑 오랜만에 셋이 만났다는 아이들, 식구들이 다 집에 있어서 공부나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이용자들, 다 만족했어요. 사립 작은도서관이니까 코로나 조치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었어요.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 인터뷰)

“코로나로 도서관 문 닫고 우왕좌왕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이야기가 나올 때, 도서관 쪽에서 가장 신속하게 움직인 단체가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였어요. 협회에서 작은도서관 관장들을 대상으로 ZOOM 워크숍을 제공했고, 관장들은 지역 모임에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이용자와 비대면 서비스를 작은 규모로 시도해봤죠. 장비도 변변치 않았지만 온라인 작가와의 만남, 강좌, 독서동아리를 일찍부터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관리자급에서 ZOOM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다룬 도서관이 별로 없었어요. 빠르게 돈 많이 안 드는 방법을 찾아내고, 같이 의논하고, 서로 가르치는 문화가 위기의 순간에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관장 인터뷰)

-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현장 전문가로서 선실험한 서비스의 성공과 실패의 노하우를 정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함. 주로 오프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
 - ① 일반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설립의 시민참여자로 적극적 의견 개진
 - ② 책 읽어주기, 북스타트 등 자원활동가로 모델
 - ③ 도서관의 독서동아리, 북스타트, 문화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강의와 연수 등의 강사
 - ④ 실천 사례 발표 및 자료 배부
 - ⑤ 작은도서관 인력의 일반공공도서관, 독립서점, 책 관련 협동조합 이동
 - ⑥ 도서 출판
- 작은도서관의 실험으로 일반도서관까지 확산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어린이 서비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유아들의 공간, 그림책 읽어주기, 인형극과 그림자극, 도서관에서 하룻밤 자기, 어린이 독서동아리, 목공과 공예 활동, 도서관 야외 공간에서 읽어주기, 어린이 책 북큐레이팅, 어린이에게 특화된 메이커스페이스, 그림책 인형 만들기와 전시, 맞춤형 책꾸러미 서비스, 그림책음악회
청소년 서비스	청소년 전용 도서관, 청소년 인문학 강의, 청소년 토론 모임, 청소년도서선정위원회, 청소년의 독서캠페인 플래시몹
성인 서비스	주제별 도서전시, 독서동아리, 어르신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저자와의 만남, 글쓰기 모임, 그림책 만들기, 자원활동가 조직과 자원활동가 교육, 도서 출판, 도서관 정원/텃밭, 그림책 인형 만들기
지역사회 서비스	책 축제, 노인 자원활동가 조직, 도서관 소식지, 시장과 농촌 지역의 책 배달 서비스, 지역의 이야기로 그림책 만들기, 마을 기록, 마을 밴드와 합창단
다문화 서비스	다문화 컬렉션, 다문화 엄마의 자기 나라 그림책 읽어주기, 이주민 사용자의 컬렉션 참여, 언어별 독서동아리
특화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그림책 도서관, 여성주의 도서관, 평화도서관, 노인특화도서관, 농인특화도서관

표 6. 작은도서관에서 실험하여 확산한 활동들

- 한국 어린이 도서관의 모델이 된 기적의 도서관을 설계한 정기용 건축가는 <기적의 도서관> 서문에서, 온돌마루를 갖춘 ‘한국형 어린이 전문 도서관’의 탄생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던 이들로부터 배운 것이 가장 컸다고 밝히고 있음. “그들이 체 험담, 그들이 생생하게 전해주는 이야기들 속에는 어떤 책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가르침이 있었다.”(15쪽)

“작은도서관에서 경험하고 고민한 내용을 정기용 선생님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어린이 도서관의 기준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작은도서관 운영자 인터뷰)

- 현재 새로운 도서관 기획의 원천이 다양해지고 있음. 일반도서관도 새로운 기획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높아져 자체적으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음. 또한 급격히 늘어난 독립서점은 도서 판매로 충족할 수 없는 수입의 손실분을 독자 모임이나 서비스를 기획 운영하면서 충당. 젊은 세대와 책을 잇는 신선한 기획을 시도 중임.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꾸리는 북클럽, 도서관 관련 사기업, 크리에이터, 스타트업의 실험도 도서관 기획의 원천이 되고 있음.
- 독립서점, 출판사 북클럽, 트레바리(독서살롱), 크리에이터 등의 사적 영역은 주로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도서관 서비스에 영감이 되는 독서문화 기획의 한 축이 되고 있음. 온라인 카페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으로 아이디어를 확산 중이며 확산의 파급력이 높음.
- 한편 작은도서관이 앞서 특화했던 어린이 서비스 공간은 폭발적으로 늘어남. 2023년 현재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공공도서관도 대부분 어린이실을 갖추고 있음. 어린이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 공간은 늘어나, 단위 기관별 어린이 이용자의 평균 숫자는 급격히 줄어듦. 2030년부터는 0-14세 어린이가 총인구의 8%대를 차지하기에, 작은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양육자 이용자는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함.
- 도서관 어린이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 종사자와 전문가의 숫자도 늘어남. 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사서 교사와 사서를 비롯하여, '한 학기 한 책 읽기' 등 수업을 통해 독서교육 경험을 축적한 초등교사들이 증가함. 이들은 교사 모임, 도서 출판, 강연과 교육청 연수, 유튜브 등으로 어린이 대상 독서 활동 노하우와 어린이 책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있음. 어린이 책 출판사, 그림책 서점, 사교육 기관, 프리랜서 등 사적 영역의 기획도 활발함.
- 실험실로서의 작은도서관의 족적은 도서관 역사에서 의미 있게 기록되어야 함. 초기만큼 독점적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작은도서관의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며 사회적 합의가 있음. 독립서점, 출판사, 사기업, 프리랜서 등의 우선 타깃이 '구매력이 있는 독자'인데 비해, 작은도서관의 주요 서비스 대상자는 '공공'이기 때문. 즉, 구매력이 없는 독자들까지 포함하거나, 그들을 우선 타깃으로 삼거나, 그들 삶의 개선에 높은 관심이 있음.
- 한국 사회의 10년 전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도서관의 새로운 기획이 필요한 커뮤니티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간구성과 배치, 북 큐레이션, 가구, 안내문, 독자상담, 활동, 독서동아리, 협업 기관, 자원 활동을 종합적으로 실험할 필요 있음.

커뮤니티	직장생활 후 정년을 맞은 베이비붐 1, 2세대 자녀 육아가 끝난 베이비붐 1, 2세대 성장기에 도서관을 독서실, 학습실로만 경험한 이들 거주지 취약성이 높은 노마딕 싱글 청년 1인가구 주거 안전과 느슨한 연대에 대한 욕구가 강한 여성 1인가구 지역 내 느슨한 연대를 원하는 40대 후반부터 60대의 장년 1인가구 빈곤율과 복합질병율,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노인 1인가구 초근접거리 이동을 주로 하는 영유아와 가정 비대면 사회에서 키워지는 어린이 심리적으로 안전한 그들의 공간을 원하는 청소년 직 워커 고령자를 직접, 간접으로 돌보는 가족 이주민과 이주민 가족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다양한 형태의 가족
내용	고립에서 벗어나는 느슨한 지역 내 연대 고령자 돌봄의 느슨한 망과 겹 이루기 깊은 읽기 능력과 비판적 문해력 생활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현대의 진전된 인권 감수성과 문화 개방성, 동물권 기후 리터러시와 기후 행동 유아와 어린이 돌봄 공동체 재난과 사회적 연대 노작 활동 비대면과 대면 혼합형 서비스 도서관 자원 활동을 커리어로 연결할 수 있도록 분화와 전문화

표 7. 작은도서관의 실험과제

- 위 커뮤니티를 염두에 둔다는 것은 이들만을 따로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뿐 아니라, 이들을 배제하지 않는 혹은 포괄하는 서비스, 이들에 대한 공공의 편견을 깨는 도서관의 수서와 큐레이션, 동아리와 강좌까지 포함함. 중국에는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음. 60+ 서비스를 예로 든다면, 60+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

스, 60+인 회원을 배제하지 않는 서비스, 60+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깨는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음.

“코로나 이전에 도서관에 들르시곤 하던 노인 이용자분들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대출이 어려워지자, ‘웃는책 사용법’ 안내를 만들었다. 회원가입, 밴드 사용, 홈페이지 사용 등을 알려주는 1대 1 서비스였다. 이분들은 온라인 ZOOM 이용법도 익혀 강좌에도 참여하셨다.”
(김자영, 『작은도서관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다』, 24쪽)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북스타트 교육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덜 차별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어휘를 쓰려고 해요. 나는 아빠인데, 할머니인데 가도 되냐는 문의를 받거든요. 요즘은 ‘양육자’라고 하거나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라고 씁니다.” (작은도서관 관장 인터뷰)

- 위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염두에 둔 서비스는 이들을 돕는 분화된 전문기관(1인가구센터, 50+, 돌봄센터, 청년 공간, 사회복지관, 정부 기관, 시민단체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연결하는 서비스도 포함됨.
-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작업실 모야”라는 새로운 어린이 서비스를 실험 중임. ‘어린이작업실 모야’는 비대면 사회에서 성장하는 어린이에게 손의 작업을 통한 창조와 주체성, 다른 어린이 작업자와의 연결 기회를 제공함. 만들기의 재료를 자연 속에서, 재활용 재료에서, 남은 재료에서 구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임. 2022년 도서관 속 어린이작업실인 ‘모야’를 조성한 17관의 도서관 가운데, 작은도서관은 12관임. 작은도서관은 절대적인 공간과 인력이 부족함에도 모야의 작업실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참여함. 작은도서관의 꾸준한 실험정신과 배움의 욕구가 새로운 프로젝트와 잘 조응한 사례임.
-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작업실 모야를 통해 도서관의 개념과 활동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진행 중임. ① 메이커 스페이스는 공간이 커야만 가능하다는 통념을 깨고, ‘작은도서관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 ② 협업의 주체가 넷 이상인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도서관문화재단 씨앗, 릴리쿰 그리고 모야를 직접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프로젝트를 진행 ③ 어린이작업실

모야에 참여하는 작은도서관끼리의 연구모임과 워크숍,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
④ 책 중심의 도서관에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전환을 실험하고 있음.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참고)

- 이 밖에도 작은도서관은 마을기록관(초롱이네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기록(책이랑도서관의 도서관아카이브, 홈커밍데이), 청소년서비스(두잉), 노인서비스(춤추는 달팽이, 여우네도서관 등), 전쟁으로 인한 재난 도서 번역 출판(평화도서관), 제주의 이야기를 제주 고유어로 그림책 출판(제주 설문대도서관), 페미니즘(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노동자를 위한 도서관(노동자의 작은도서관 사람), 만화와 웹툰(청산 작은도서관, 여좌작은도서관, 담소작은도서관), 생태(건지산 숲속작은도서관), 여행과 축제(여담작은도서관), 커피(강릉 문화작은도서관), 도예(들고지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실험들을 시도하고 있음.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도서관의 사례로 꼽히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한 필라델피아 도서관의 ‘푸드 리터러시와 커뮤니티 식사’도 한국의 작은도서관에서 이미 실험해왔던 사례임.
-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활동가가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을 때, 즉 자신, 혹은 내 세대의 화두를 해결할 방법으로 도서관 서비스로 만들어 낼 때, 열정과 창의성과 추진력이 생겨남. 작은도서관에 양육자가 많은 곳에서는 ‘좋은 어린이 책을 내 아이가 읽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친구와 이웃을 찾아 함께 하리라’는 부모로서의 자기 문제가 어린이 작은도서관에 반영됨. 내 세대의 문제이기에 동료를 찾기도, 설득하기도, 함께 하기도 쉬우며, 고민과 활동이 미세수준까지 정교화될 수 있음.
- 현재 필요한 실험 중 시급한 것은 인구의 25%(2030년), 34.4%(2040년)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전후 세대,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서비스임. 시니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매우 기초적이거나(한글 교실, 큰 글자 도서, 돋보기, 도서 배달),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거나 시혜적이거나 다양성하지 않음. 0세부터 19세의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가 세밀하게 분화되었듯, 60+ 서비스도 분화가 필요함. 현재 60+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정리한 한국의 도서도 없고, 전문 사서도, 전문 교육도 거의 없음.
- 베이비붐 세대의 작은도서관의 운영자가 가장 뛰어나게 해낼 수 있는 실험은 당사자성을 갖고 “나는 읽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행동하는 노인이 되고 싶다. 그런 친구와 이웃을 찾아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를 돌보며 살겠다”라는 자기 문제로 도서관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임. 이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고민, 경제적인 문제,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나이든 부모의 돌봄과 간병, 자녀세대와의 관계, 조부모의 역할, 문화예술과 여행에 대한 욕구, 달라지는 인권 감수성, 달라지는 시민의식, 빠르게 변화하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적응, 에이지즘(연령에 따른 차별), 고립과 허무 등을 도서관 서비스에 녹여내는 실험이 필요.

- 사회적 실험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데이터임. 데이터는 참여자 수, 소요시간, 대출 권수와 같은 양적인 통계로도 기록되고, 이야기라는 질적인 데이터로도 기록될 수 있음.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실험은 엄밀한 연구실험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일반화하기에 샘플이 크지 않음. 질적 데이터 즉, 이야기를 나누고 수집하고 기록하는 공동체 아카이빙이 작은도서관에 최적화된 실험 데이터가 될 수 있음.

“우리 도서관에 암 투병을 하는 분들의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주로 이야기를 나눠요. 사실 정보는 암 환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많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에선 만날 수 없으니까 헛헛하거든요. 암의 통증과 두려움도 문제지만, 지독한 외로움이 또 다른 고통인데, 가까이 만날 수 있으니까 서로 힘이 됩니다. 같은 고통에 있는 이들과 작은도서관이나 ZOOM에서 모여 투병기를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글도 쓰세요. (작은도서관 운영자 인터뷰)

- 초롱이네 도서관의 기록집인 <초록初錄, 처음을 기록하다>는 초롱이네도서관이 시도한 가을동화잔치 20년의 기록, 해피아이네트워크 12년의 기록, 사람책 등의 이야기가 담겨있음. 작은도서관의 아카이빙은 법적 증빙이나 보존을 위한 기록물과는 달리, 평범한 시민의 변화, 참여와 협력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온 이야기를 담음.
- 한두 번의 시도로는 전문적 노하우를 만들기 어려움. 과거 어린이 서비스의 모델을 만들어냈듯, 이러한 실험들은 3~4년 동안 꾸준히 지속하고, 기록하고, 참여자의 이야기와 고민을 수집하고, SNS를 통해 확산하고, 출판해야 함. 시대의 필요와 욕구가 커지면, 반드시 그 전문적 노하우를 얻고자 부르게 됨.

2. 아웃리치 서비스와 독자개발

- 도서관의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란 도서관 서비스와 자원을 전통적으로 소외된 또는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활동임. 아웃리치 서비스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음.
-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서관 이용자 비율은 2021년 약 17%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8년 사이에 성인 남성의 경우 11.8%p, 성인 여성은 15.2%p 급감했음. 이용률의 감소 추이는 특정 연령대가 아닌 모든 연령대에 걸쳐 고루 나타남.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성인 남성	28.3%	26.7%	20.6%	20.4%	16.5%
성인 여성	32.4%	29.7%	23.7%	27.2%	17.2%

표 8. 성인 성별 도서관 이용자율 추이 (출처: 「국민독서실태조사」)

“많은 사람들이 책과 도서관하면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책이나 독서와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안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윤명희, “첫 번째 주재대담: 사회 변화와 도서관, 김경집 외, 「도서관 담론: 도서관의 미래를 말하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8. 163쪽)

- 작은도서관은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정보와 지식 소외층’에 관심을 두며 일반공공도서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아웃리치 서비스를 개발해왔음. 예를 들어, 과거 유아는 도서관 이용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유아를 위한 도서관 공간과 유아용 그림책 장서, 북스타트 활동 등의 아웃리치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가 됨.
- 아웃리치 서비스가 아니었다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을 비 이용자들에게 이용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됨. 미국 도서관협회의 다양성, 문해력, 아웃리치 사무소(The ALA Office for Diversity, Literacy and Outreach Services, 이하 ODLOS)에 따르면, 아웃리치 서비스에서 주목해야 하는 특별한 그룹은, ① 역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인종과 민족, ② 성별이나 성적 정체성에 차별을 받는 이들, ③ 연령, 종교, 장애로 보호가 필요

한 이들 ④ 국적이거나 언어로 차별받는 이들 ⑤ 지리적으로 고립된 이들 ⑥ 배고픔, 노숙, 가난을 겪는 이들 ⑦ 이주민, 난민과 이민자들 ⑧ 새로운 독자, 비독자들임.

■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아웃리치 서비스 사례 일부를 박소희 『여기는 작은도서관입니다』, 박소희, 전해선, 『우리 동네에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및 기타 자료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이동도서관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도서관 서비스를 도움. ('패랭이꽃 그림책버스', '안남 배바우도서관'은 어린이들을 도서관에 데려와 집으로 데려다주는 안남면순환버스 운영, '풀뿌리미디어도서관'은 책 자전거를 끌고 동네를 다니며 책을 전하고 도서관을 알림)
- ②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거나 공동육아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와 가족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임. ('배고픈 사자'의 방과 후 돌봄 지원,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의 공동육아모임, '내보물1호도서관'은 1층 장난감도서관과 3층 공동육아나눔터에 주제별 그림책을 전시하여 양육자를 도서관으로 안내, 지역아동센터와 결합한 작은도서관들은 돌봄 대상 아동들을 대상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
- ③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대상의 서비스 ('다문화그림책도서관 토닥토닥'과 '꿈꾸는새싹'의 다문화가정 부모와 아이를 위한 서비스,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의 엄마 나라 언어 수업, 베트남어 교실, '청성작은도서관'의 이주민 부모를 위한 한국어학당, '안산다문화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 ④ 노인을 위한 서비스 (시니어 특화 도서관인 부산 은빛사랑채작은도서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을 위한 '웃는 책'의 1대1 멘토링, '낭산작은도서관'은 낭산작은목욕탕이 함께 있어, 노인 인구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임)
- ⑤ 커뮤니티 식사를 통한 도서관의 방문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청소년이 주관하는 모듬의 밥상, '모당공원작은도서관'의 밥 먹는 인문학)
- ⑥ 청각장애인 특화 도서관인 '영릉 농문화 도서관'의 수어독서동아리
- ⑦ 도서관 밖 카페, 식당, 미술관 등 현장에 어울리는 컬렉션을 배치 ('느티나무도서관'의 컬렉션 버스킹, 골목을 바꾸는 작은 가게들)
- ⑧ 작은도서관 근거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규칙적인 도서관 방문
- ⑨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도서관견학, 도서관내,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 ODLOS에 따르면, 아웃리치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는 다양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과 편견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서비스하는 특정 그룹에 대한 이해력, 사람 중심의 사고, 사교성

과 열정, 도서관의 관행 바깥을 상상하고 실행하는 창의력과 유연성이 필요함. 그리고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에 축적하기 어려움.

■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아 컬렉션이 압도적이지 않기에 신참자가 장서를 네비게이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음. 운영자는 신참자를 관찰하기도 말 걸기도 쉬워 개별화된 독자상담을 제공하기 쉬움. 서로가 익명이지 않아 관심사로 알기 쉽고 소속감도 높아짐. 큰 학교를 작은 학교로 일부러 나누는 '작은학교 운동'은 이러한 이점을 염두에 둬. 이때 '작은'은 '부족함'을 의미하지 않음. 다인수 학급과 소인수 학급의 차이처럼,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비이용자를 위한 개별화 서비스에 집중하기 쉬움.

“울산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에서는 ‘아베 마호랑 책을 읽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략) 한글을 모르는 일본인 어머니, ‘아베 마호’를 위해, 독서동아리들이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분과 함께 한글책 읽기를 합니다. 동아리 카톡방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어요’라고 알려주면 다음 날 다른 활동가가 이어서 읽어줍니다.” (백영숙, “작은도서관과 독서동아리”, 「2021 사회적 독서 콘퍼런스」 발표)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경험을 『즐거운 다문화도서관』으로 출판한 정은주는 이주민들에게 큰 도서관은 대형마트와, 작은도서관은 동네 슈퍼마켓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함. 작은도서관은 다문화서비스, 특히 도서관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에게 특별히 효과적임. 큰 도서관에서는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난감하며, 요구를 이야기해도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웹사이트 신청 등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야 해서, 윗선 관리자와 논의가 필요해서’ 등의 반응을 경험한다고 함. 한 도서관에 많은 사서가 근무하고 순환 근무를 하기에 친밀감을 갖기가 다소 어려움. 반면, 작은도서관에서는 바뀌지 않는 한두 명의 직원과 비형식적인 대화만으로도 자신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작은도서관은 기획부터 실행까지 결제와 결정의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도 짧아 관료성의 폐해가 적음. 신참자인 아웃리치 대상자들은 도서관의 관행에 익숙하지 않기에, 아웃리치 대상자나 사서, 양편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음. 도서관의 일반적인 서비스와는 달리, 아웃리치 서비스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접근과 긴급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아웃리치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의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

로움도 완화해줌. 뉴욕대 사회학과 교수인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에서, 도서관이 가장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이며, 가장 저평가된 사회적 인프라라고 주장. “정치가들과 행정가들은 도서관 대출 건수의 감소나 인터넷의 무상 정보 등으로 도서관의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판단하기 쉬움. 도서관이 현대의 지역공동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이해하는 지도층 인사들은 매우 적음. 이들은 도서관을 필수가 아닌 사치로 여겨,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가장 먼저 예산을 삭감하려 함. 도서관은 고립과 고독같은 문제를 완화하는데 필수임.”(51~53쪽)

- 예를 들어, 고령자의 집이나 노인복지센터로 책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와 고령자가 도서관에 방문하여 책을 추천받고 다른 독자들 속에 머무르는 것은 천양지차임. 미세먼지가 있으니 노약자는 집에 머무르라고 문자만 보내는 것과 공기청정기를 갖춘 가까운 도서관을 안내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효과를 낳음.
- “고령자들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대개 연배가 비슷한 고령자들만 만나게 됨. 그러다 보면 고령자들이 자기 자신을 그저 나이 많은 것밖에는 아무런 특징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기 쉬움. 반면 도서관은 많은 고령자들이 다른 세대와 교류할 수 있는 주요한 장소임. 늙어감을 두려워하는 것비슷한 이들로만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다채롭고 활발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음.”(『같은 책』, 59쪽)
- 아웃리치 서비스의 성공은 계량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움. 열렬한 독자 10명이 도서관을 방문하게 만드는 노력과 비독자 10명이 도서관을 방문하도록 만드는 노력은 월등한 차이가 있음. 후자는 이루기가 훨씬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음. 단순한 방문자 통계를 비교 평가하는 것은 한정된 도서관 이용자를 놓고 파이를 다투는 일과 같음. 국가는 파이 자체를 키우는 노력, 즉 도서관 이용자를 넓히는 아웃리치 서비스를 지원하고 투자해야 함.
- 독자개발(reader development)은 개인의 독서능력과 독서습관을 촉진하고 향상하는 과정을 의미함. 비독자를 독자로 유도하는 과정임.
- 2021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성인의 연간종합독서율(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을 1년동안 1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은 2013년 72.2%에서 2021년 47.5%로 급격하게 감소함.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의 독서율은 35.7% 60세 이상은 23.8%로, 60세 이상 노령층의 비독자 비율이 76.2%에 육박함. 추이를 살펴봐도 20~30대 젊은 층의 독서율은 예년과 비슷했으나, 50대와 60세 이상의 독서율은 급격히 감소함.
-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들 가운데 비독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기에, 이들을 향한 독자개발 서비스가 필수적임. 일반도서관에서 50+ 세대는 관리자급이고 프로그램 담당자

는 젊은 연령인 경우가 많음. 베이비붐 세대의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들은 동년배로서의 민감성을 가지고 50+를 위한 독자개발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최적화될 수 있음.

- 독자개발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① 비독자들 개인의 읽기 능력과 관심사에 맞는 개인별 책 추천
 - ② 비독자들의 관심사를 다룬 다양한 장르의 북큐레이션
 - ③ 정기적인 묵독과 낭독의 시간
 - ④ 독서동아리
 - ⑤ 도서관과 서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할 기회 확장
 - ⑥ 비독자에게 영향력있는 독자 모델
 - ⑦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놀이, 미션, 게임과 결합한 즐거운 경험
- ‘읽기’를 가장 효과적인 촉진하는 활동은 ‘읽기 자체를 함께하는 것’임. 독서동아리가 운영되려면 ① 다른 독자 ② 책 ③ 모임 공간 ④ 촉진자가 필요함. 작은도서관에는 간식을 나누며 비행식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 모임의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 활동가로서 적극성을 갖춘 독자들이 존재함. 작은도서관은 독서동아리를 비롯한 모임 형성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3. 미시(微視) 커뮤니티 도서관

-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정보대학원의 R. 데이비드 랭크스(R. David Lankes)교수는 ‘한국 도서관의 미래’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여러 도서관에 펼쳐질 하나의 미래라는 것은 없고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지만, 공통으로 “커뮤니티와 도서관 이용자가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커뮤니티가 더 현명한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확실히 참여하여 돕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주장.
- 랭크스 교수는 “나쁜 도서관은 장서만 수집하고, 좋은 도서관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훌륭한 도서관은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언명으로 유명한데, 미래의 도서관에서 장서의 수집과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장서와 서비스가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어야 함을 강조함. “사서의 임무란 소속 커뮤니티 내 지식 창출을 활성화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하고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 랭크스 교수는 한국 방문 이후 Publishers Weekly에 쓴 기고문에서 한국의 혁신적인 커뮤니티 도서관으로 느티나무도서관, 구산동도서관마을, 마포중앙도서관, 순천 기적의 도서관, 맨발동무도서관, 라이브러리 티티섬을 소개함. 이들 도서관은 미래의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특성, 즉 커뮤니티 중심적이고(community centered), 커뮤니티에 힘을 주며(empowering), 진보적인(progressive)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졌다고 설명함.

“이곳(라이브러리 티티섬)은 청소년들이 탐험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였으며, 무관심한 정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서관 사서들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의 역할을 하는 사서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이들 도서관에는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전문성을 기부하여 그들의 커뮤니티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미리 경고하지만, 이 도서관들은 기성품처럼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도서관들은 각자의 고유한 커뮤니티에 딱 맞추어 수작업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 David Lankes, “Exploring the Innovative Community Libraries of Korea”, Publishers Weekly, Jan 12, 2023.)

- 글에서 언급된 도서관들이 공·사립을 망라하고 대부분 민간 혹은 민관의 협력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함. 지역주민의 제안과 기부, 참여로 촉발된 민간의 도서관 운동은 초기부터 커뮤니티 도서관을 지향하고,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가를 양산해왔음.
- 한국의 일반도서관이 장서 관리→다양한 서비스→좋은 커뮤니티 형성의 순서로 관심을 높여왔다면, 작은도서관은 좋은 커뮤니티 형성이 관심의 시작이었음. 작은도서관을 자발적으로 만들고 어려운 조건에도 지속해온 가장 큰 동력은 풍족한 장서와 장서 관리에 대한 욕구가 아니었음. 장서는 적더라도 좀 더 나은 커뮤니티에 목적을 두고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해왔음. 작은도서관이 시작부터 현재까지 커뮤니티 형성을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방향은 미래적임.

“작은도서관 일은 돈이 되지 않고, 단순히 봉사도 아닙니다. 왜 나는 작고, 큰 관심을 받지 않고, 재정도 열악한 이곳에서 이려고 있는지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이 서로 어울려 따뜻할 수 있도록 온기를 전해보자는 생각,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더 훈훈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작은도서관 일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팔판작은도서관 운영자, 『마흔아홉,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68쪽)

- 작은도서관 뿐만 아니라 일반도서관도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여겨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함. 2022년 공공도서관 평가 기준, 지역공동체의 역할 강화가 주요 배점 사항으로 포함됨.
- 일반도서관에 비해 작은도서관이 주로 특화된 커뮤니티는 ‘미시(微視, Micro) 커뮤니티’임. 미시 커뮤니티는 작은 규모로 개인이 공동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단위임. 대형서점과 독립서점을 상상하면, 미시 커뮤니티로서의 작은도서관을 이해하기 쉬움.
- 미시 커뮤니티는 거시 커뮤니티에 비해 서로를 더 잘 알고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친근하고 비형식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짐. 미시 커뮤니티에서는 운영자나 이용자가 이름이나 얼굴을 알거나, 목례나 인사를 하거나, 눈을 맞추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음. 상호작용 없이 익명으로 머물더라도, 사회적인 환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공간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지고 필요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마음의 문턱이 낮아짐.
- 작은도서관은 미시 커뮤니티를 만들기 쉬운 환경이기에 큰 도서관에 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데 강점이 있음.

- ① 개별화된 도움과 소규모의 수업: 이용자의 다양성(연령, 언어, 장애, 전자매체 이해정도, 근무시간 등)이 높아짐에 따라 1대 1 혹은 5인 이하 소규모 서비스의 요구가 높아짐. 특히 비대면 시대 문해력에는 개인차가 심함. 책 읽기에 관련된 문해력은 의무교육 기간에 배운 역량을 평생 쓸 수 있음. 그러나 매체는 매체가 달라질 때마다 매체 고유의 읽고 쓰기 방식(ChatGPT, 전자책, 앱, 소셜미디어, OTT, 유튜브 등)을 따로 배워야 함.
- ② 활동의 연속성: 운영자와 자원활동가 봉사자의 일터와 생활터가 같아 공유하는 세계와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음.

“학교도서관에서도 자원봉사를 했었는데요. 일회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시간대별로 와서 서로 친해지지도 못했고요. 아이들 학교 졸업하니까 아예 갈 기회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내가 원한다면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도서관을 벗어나도 이웃들은 계속 만나니까 뭔가 연속되는 느낌이 있어요. (작은도서관 활동가 인터뷰)

- ③ 공동육아: 단 몇 분이라도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어린이가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음. 운영자에게 맡기지 않더라도 자신이나 아이를 알고 있는 이웃을 만나기 쉬움. 틈새 돌봄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음.

“아이가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길에서 15분 혼자 두기가 어렵잖아요. 엄마 들끼리 순번 정해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 돌봤어요. 아이들은 도서관에 모여서 물도 마시고 간식도 챙겨 먹고 화장실도 가고요. 책도 보고, 숙제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누워 쉬기도 하고요. 동네니까 학원 버스도 태워 보냈어요. 각자의 거실을 그렇게 내주는 어렵잖아요. 청소도 해야 하고, 저희 모임은 작은도서관을 동네 거실처럼 잘 이용했어요. 며칠이라도 종일 마음 편하게 시간이 나니까 재취업 준비하는 엄마들은 뭘 배우러 다니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육아동아리 회원 인터뷰)

- ④ 틈새 복지: 대면 접촉이 많은 미시 커뮤니티기에 복지의 빈틈과 적절한 수혜자를 알아내기 쉬움.

“구청에서 난방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네 신청자가 없다고 주민센터에서 우리 도서관으로 연락이 왔어요. 아파트 작은도서관이라 주민들이랑 접촉면이 많고, 알음알음 서로 아니까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을 연결해줄 수 있었어요. 작은도서관은, 특히 아파트 작은 도서관은 ‘틈새 복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작은도서관 운영자)

- 미시 커뮤니티가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기 쉽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음. 이용자는 도서관 서비스의 수혜자인 동시에 자신이 기획한 활동을 도서관에서 제안하고 운영할 기회가 많아짐. (예를 들어, 강연 수강과 참석에 머물지 않고, 강연의 제안, 기획, 홍보, 운영, 후속 활동에 참여) 이러한 활동은 커뮤니티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애정,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옴.
- 도서관의 전문사서직과 이용자 사이에 도서관의 활동가와 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중간 영역”이 늘어남. 이들은 도서관의 수혜자이자 시혜자인 이중적인 정체성으로, 소비자/민원인의 마음가짐보다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서관을 대함. 두 가지 정체성이 교차하는 순간, 시민과 이웃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림.
- 도서관 활동가는 독서동아리, 공동육아, 문화예술, 기록 활동, 북 큐레이션, 공동 정원, 팟캐스트, 소식지, 환경운동 등에 참여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하고 커뮤니티의 연결을 도울 수 있음. 이들의 다양한 교육적, 직업적, 문화적 배경은 도서관 콘텐츠의 다양성을 제공함. 이들의 참여와 활동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되어, 도서관과 도서관의 가치를 알리는 기능을 함.

“도서관을 이제 접어야지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들의 얼굴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사람을 키운다.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성장한다고 할 때, 저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얼굴들은 자원 활동가입니다. 평범한 엄마였던 이용자가 지역사회의 현안을 고민하고 도서관의 활동을 기획하는 파트너이자 선생님이 되었거든요. 저렇게 신나게 지내는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 이들의 역량이 묻히면 얼마나 손해인가, 고민합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자 인터뷰)

- 근미래의 변화, 1인가구의 고립, 길어진 은퇴 이후의 삶, 저출생으로 인한 육아비용의 증가, 길어진 돌봄의 시간 등의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미시 커뮤니티는 도움이 됨. 가족과 친지, 종교가 전통적으로 제공하던 미시 커뮤니티의 기능이 점차 약화하면서, 이를 대체할 미시 커뮤니티를 갖지 못하는 이들은 사회적 연결망을 갖기 어려움.
-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 (BLI: Better Life Index)에서, 공동체 지수를 묻는 질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나요?”에서 한국은 2021년 40개국 중 40위를 차지함. 이미 1인가구의 비율이 33.4%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 2030년 35.6%, 2050년 39.6%로 예상되는 한국에서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는 고립과 재난의 고통을 더 가중함.



그림 11. 공동체 지수 (출처: OECD Better Life Index 2021)

- 특히 ‘돌봄’에 연루된 도움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해결할 수 없음. 온라인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기 돌보기나 육아, 치료와 간호, 간병은 신체성을 가짐. 자녀 독립의 기간이 늦어지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전체 생애주기에서 돌봄에 연루되는 기간이 늘어가고 있음.
- 돌봄의 몫은 가족 구성원이 떠안거나, 서비스 상품으로 구매되거나, 국가의 제도에 맡겨지고 있음. 김영옥 외는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에서, 돌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시민적 돌봄”을 제안함.
- “돌봄 위기는 독박의 구조로부터 나온다. 나만 떠안을 수 있다는 공포는 나도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주저앉힌다.”(37쪽) 돌봄을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좁히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묻고 제도의 개선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돌봄의 문제가 제도의 문제만으로 환

원될 수는 없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우정과 관계를 만들어주지는 못함. 가족과 국가 사이에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는 관계 즉 “‘친구로, 동료로, 이웃으로, 지인으로’ 돌보는 것을 예외가 아닌 시민적 보편성으로 만드는 것”(19쪽)이 중요하다고 주장.

- 김영옥과 저자들은 건강한 몸과 독립을 정상으로, 돌봄과 의존을 비정상과 예외로 놓는 관점에서 벗어나, 반대로 건강과 독립이 예외적이며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가 인간 삶의 기본값임을 주장함. 돌봄은 아기 육아와 간병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로 일상에서 타자와 관계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민이 가져야 할 덕목이자 역량임. 작은도서관의 공동육아 커뮤니티, 독서동아리, 각종 모임, 활동가로서의 참여 등의 미시 커뮤니티 경험은 시민적 상호돌봄을 경험하는 장이 됨.

4. 교통약자의 유일한 도서관

-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임신부, 영유아(만 0~5세)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만 0~12세)로, 교통약자 인구는 총인구 대비 약 30%임. 이들 교통약자의 비율은 2040년 40%, 2050년 45%로 늘어남.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이동권 약자를 떠올리지 쉽지만, 사실 가장 많은 인구는 고령자 57%임, 그리고 이들의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남. 다음으로 어린이 20.7%, 영유아 동반자 12.5%, 장애인 8%, 임신부 1.7%의 순서임. 큰 도서관이 도시에 듬성듬성 있으면, 장서와 시설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이용하기 어려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노인이 도보로, 유아차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에 도서관이 위치해야 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교통약자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마다 큰 도서관을 짓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음. 같은 예산이면, 큰 도서관을 듬성듬성하게 배치하기보다는 작은도서관은 촘촘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음. 고령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교통약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임. 도시 내에 교통약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이 거점도서관 사이에 촘촘하게 위치하면 이들의 도서관 접근성이 높아짐.
-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미래세대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방향」에 따르면, 핵가족화로 인해 미취학 자녀를 돌볼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면서, 미취학 아동의 도서관이나 전시, 체험시설 이용 시 양육자가 97% 동반함. 미취학 아동은 평균 도보 10분, 차량 17분 거리의 시설을 이용함. 미취학 아동(알파세대)의 양육자인 밀레니엄 세대도 알파 세대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움. 어린이 양육자의 이동 또한 어린이의 행동반경에 좌우됨.

“아이를 데리고 큰 도서관으로 가는 게 엄두가 안 났어요. 대중교통은 불편했고, 자동차로 이동할 때에는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고 짐을 싸서 움직여야 하는 큰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집 앞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이사를 결심했고, 아이랑 매일 놀이터처럼 다녔습니다.”(작은도서관 이용자 인터뷰)

-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고령인구 밀집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근린환경 개선방향」에 의하면,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근린시설의 1+2순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것이 이동권과 관련된 사항(보행로 정비와 대중교통 개선)이고,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임. 고령인구 밀집지역의 고령인구 94%는 주 1~2회 외출하며 도보 이용 외출이 전체의 79%임.
- 도서관은 놀이동산이나 여행지처럼 일 년에 한두 번 가는 이벤트 공간이 아니라, 매일의 걷기 운동을 위한 공원처럼 일상의 공간이어야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의 생활화, 시민의 문해력을 촉진하고 싶다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 공원과 걷기 길을 촘촘히 배치하듯이, 도서관을 거주지 주변으로 배치해야 함.
- 시내 한 곳 (예, 광화문과 시청)에 많은 이들이 모여 즐겁게 책 읽는 이벤트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교통약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음. 큰 도서관이나 큰 이벤트에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동에 문제가 없는 이들이 멀리에서도 오기 때문이지, 멀리 사는 교통약자들이 오기 때문이 아님.
- 다수의 교통약자에게는 가까운 도서관이 유일한 물리적 도서관임. 2040년이면 교통약자의 비율이 40%에 육박하기에, 근접 거리의 도서관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들로부터 도서관 서비스 자체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짐.
- 환경 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염과 한파, 폭풍, 폭설, 폭우, 미세먼지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의 어려움을 가속화 함. 이러한 극단적인 날씨의 빈도와 강도는 근미래에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폭염 속에서는 건강한 성인도 20분 이상 걷기가 어려움. 교통약자는 어쩔 수 없이 집에만 고립되는 시간이 늘어남.
- 2023년 7월, 아시아, 유럽, 미국은 기상관측 이래로 가장 뜨거운 여름을 경험하고 있음.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온열질환, 자연발생적 화재가 빈번함.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글로벌 워밍이 아닌 글로벌 보일링으로 명명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함. 바르셀로나와 파리, 뉴욕은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를 피하고 일과 작업,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쿨링센터로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음. 도서관은 폭염 및 한파 등 극단적인 기후에 대비한 일상의 기후피난처로 각광받음.

박물관 외에 또 다른 피난처인 유명 도서관도 요즘 인기입니다. 태블릿PC를 무료로 빌릴 수 있고 물과 부채도 공짜로 제공됩니다.

니콜라스 시푸엔테스, 도서관 전시회 주최 아티스트 : “이 도서관은 폭염 대피소 그 이상입니다. 문화 쉼터이기도 하고 사색의 쉼터이기도 합니다.”

바르셀로나시가 3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한 기후 피난처가 최악의 폭염 속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중략) 70곳으로 시작된 바르셀로나 기후 피난처는 올해 227곳으로 늘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어디나 있는 셈이지만 매년 추가로 설치해 2030년까지는 50m 이내에 1곳 이상의 기후 피난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폭염 피하는 스페인 ‘기후 피난처’...물도 부채도 공짜”, 2023년 07월 29일자

- 구내 9개 작은도서관을 스터디 카페로 전환하려 했던 서울 마포구의 예를 들면, 상암월드컵 아파트 2단지 아파트 주민이 마포중앙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38분이 걸리지만, 성산골마루 작은도서관까지는 15분이 소요됨. 마찬가지로 도화3지구 우성아파트에서 마포소금나루도서관까지는 도보로 31분이, 복사골 작은도서관까지는 도보로 12분이 소요됨. 아파트와 소금나루 도서관, 두 지점 간에는 대중교통도 마땅치 않음. 이런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없애면, 왕복 도보 시간이 1시간이 넘어, 교통약자의 도서관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아짐.



그림 12. 상암월드컵아파트 2단지 아파트에서 마포중앙도서관과 성산골마루작은도서관의 도보 경로와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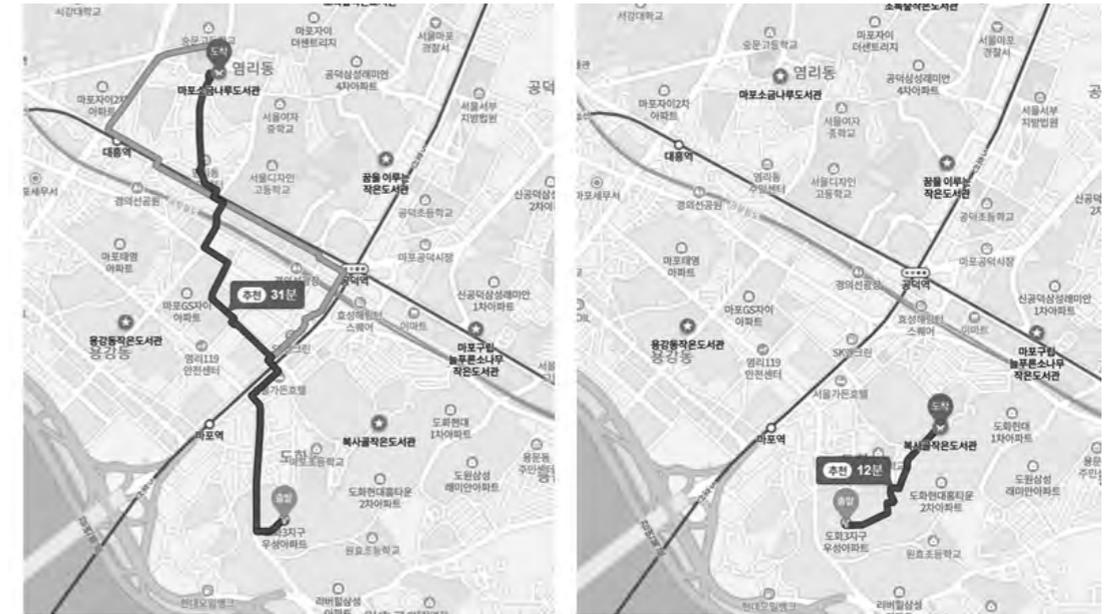


그림 13. 도화2지구 우성아파트에서 마포소금나루도서관과 복사골작은도서관의 도보 경로와 소요시간

- 서울연구원에이터서비스의 공공도서관 수 국제비교에 의하면, 서울은 비교 대상 도시인 뉴욕, 파리, 도쿄에 비해 규칙적으로 배분되어 있지 않음. 서울(2013년 기준 126개), 뉴욕 (2015년 기준 224개)으로, 현재의 데이터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분포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서울 도서관 서비스의 혜택이 양적으로 고르지 않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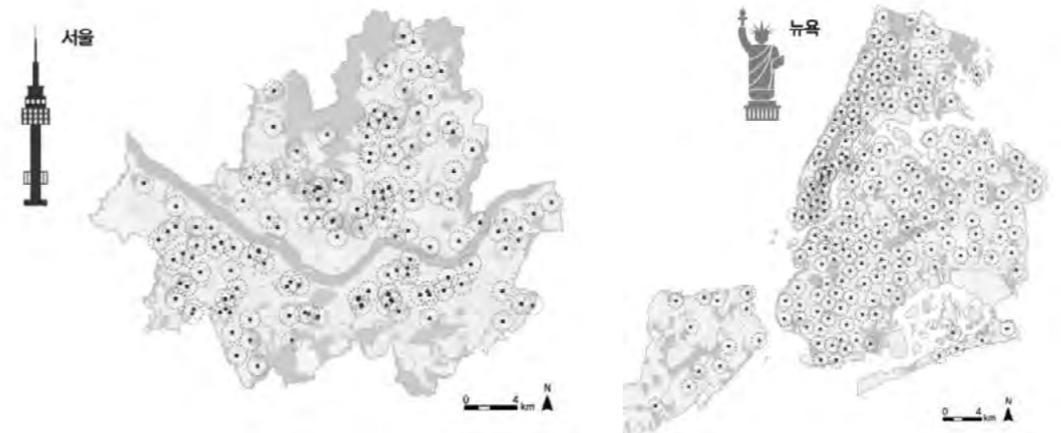


그림 14. 서울연구원 공공도서관 분포도 (출처: data.sire.kr)

-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교통약자들의 자동차 이동은 탄소를 발생시키고, 도서관은 더 많은 주차장을 마련해야 함. 뉴욕시의 도서관 위치를 살펴보면 자동차가 아닌 도보로 이동하도록, 도보접근권 800m 간격으로 도서관이 분포해있음. 따라서 뉴욕 시민은 아무 방향으로든 400~500m만 가면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음. 이는 마포 도화3지구 우성아파트와 복사골 작은도서관의 이동 거리 509m와 비슷함. 파리를 비롯한 N분 도시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도시의 필수기능을 배치하고, 자동차 중심의 도로를 도보와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만들면, 도시가 일상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음.
- 생활 SOC 10분 사업은 생활 편의 증진시설에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음. 15분 도시의 사례처럼 근접한 생활 SOC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사회간접자본인 도로를 자동차에서 대중교통과 무동력 이동으로 재편하고 도서관 등 생활 SOC를 15분 내로 배치하는 도시계획은 탄소 제로를 이루는데 핵심적임. 전 세계 기후위기 대도시 협의체인 C40 부의장으로 선출된 오세훈 시장, 부산 15분 도시를 표방하는 박형준 시장이 초근접 도서관의 설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함.

작은도서관 × 어린이작업실 모야

- 어린이작업실 모야는 8세~13세 어린이들의 메이커 공간으로, 어린이들이 교사나 프로그램 없이 자유롭게 손 작업으로 자신으로 표현하는 작업실임. 모야는 어린이인 '작은손', 도서관에서 모야를 운영하는 어른인 '오른손', 작은손의 보호자인 '뒷집손'으로 구성됨.
- '작은손'은 작업의 내용과 재료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함. 작은손은 모두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서약서를 읽고 동의함. 모야를 운영하는 '오른손'은 '작은손'의 나다움을 존중하고, 동등한 작업자로 대하며,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며,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지켜본다는 원칙을 약속하고 지킴.
- 작은도서관의 어린이작업실 모야는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라는 마음의 장벽을 가진 어린이들을 위해(아웃리치), 보호자 없이도 스스로 걸어 자주 올 수 있는 초근거리에서 (교통약자), 어린이와 운영자, 혹은 어린이끼리 직접 대면하는 친밀한 작업 공동체를 만들고 (미시 커뮤니티), 서로 관련 없었던 여러 사업 주체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는 (도서관들의 실험실) 미래형 도서관 공간임.
- 어린이작업실 모야에 참여하는 도서관 가운데, 작은도서관의 참여비율이 가장 높음. 2022년 12월 기준으로 14개, 전국의 2/3를 차지함, 2023년 현재 총 20곳 참여함.
- 어린이작업실 모야의 공간으로 작은도서관들이 다수 선택된 이유를 씨프로그램의 신혜미는 다음과 같이 상술했다.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의 생활 환경에 있기에 ① 일상에서 언제든지 어린이 스스로 보호자 없이도 걸어가갈 수 있고, ② 어린이가 경제적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방문하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환대하는 운영자가 있으며 ③ 다양한 영감과 자극을 접할 수 있는 책이라는 콘텐츠가 있으며 손으로 만들고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많음. 새로운 콘텐츠에 목마르고 늘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운영자의 적극성을 언급.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107-110쪽)

“도서관을 몰랐던 분들이 새로 오고 있어요. 어린이들이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책에 관심 없는 어린이들도 도서관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좋아요.”
 “모야 덕분에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도서관의 역할이 확장된다고 생각해요.”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101-102쪽)

- 어린이작업실 모야에서는 실험실처럼 어린이들의 작업 데이터(작업시간, 재방문율, 사용한 재료,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함. 그리고 이를 책, 자료, 공간의 설계에 다시 반영하여 개선함.
- 공간이 작고 운영 인력이 적음에도 작은도서관의 모야 참여비율이 높은 이유는 작은도서관이 가진 특별한 장점을 보여줌.

- ① 작은도서관의 공간은 7-13세 어린이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는 휴면 스케일을 가짐. 주 거처에 근접한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의 걸음으로 혼자 반복적으로 찾아가기 쉽고, 도서관 내에서도 모야 공간 안팎으로 혼자 이동하기 쉬움. 아이들의 이동이 운영자에게 가시적임.
- ② 작은도서관은 모야 공간을 별도의 실이나 방의 형태로 갖지 않기에, 도서관과 모야 공간의 경계가 완벽하게 단절되지 않음. 이는 아이들의 작업을 도서관의 전통적인 콘텐츠인 책과 쉽게 연결되도록 함(민지은). 서가가 곁에 있기에 책을 보고 뭔가를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결합하기가 쉬움. 또한 도서관 외부 환경과도 쉽게 연결되어 모야에서 만든 것을 도서관 바깥에서 실험하고 다시 모야로 들락날락 이동하는 것이 용이함.

“아이들이 도구를 만들면, 꼭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봐요. 벌레를 잡는 도구를 만들면, 밖에 나가서 해봐요. 도서관 안팎을 들락날락합니다.”(여우네 도서관)

- ③ 작은도서관의 의사결정은 간소하고 신속함. 운영자와 자원활동가의 결정으로 어린이작업실 모야에 참여할 수 있음. 반면 일반공공도서관의 경우 관장이 직원들과 회의로 모야 업무를 위한 별도의 직원을 두거나 업무 분장을 조정하고, 도서관의 공간을 변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혹은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있음. 관장, 직원, 재단,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와 지원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참여하기 어려움. 실제 논의 과정에서 모야에서 쓰는 도구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어 관장이 적극적이었음에도 지원을 포기한 공공도서관이 있음.

“관장과 사서들, 이용자들이 모야 공간에 관심이 있었고 도서관 내에 유치하고 싶어했어요. 그런데 재단과 지자체에서 반대했어요. 모야에서 가위나 칼, 톱 같은 걸 사용하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민원을 걱정하셨습니다.”(공공도서관장 인터뷰)

- ④ 작은도서관은 서비스하는 인구가 많지 않기에, 모야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제한적임. 어린이들이 익명적이지 않아 모야 담당자들이 어린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함. 이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탐색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줌.

“모야에 오는 아이들, 그뿐 아니라 작은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은 이름으로 불러요. 이름을 모르더라도 얼굴은 다 낮이 익죠.”(천안 성성푸른도서관)

- ⑤ 작은도서관 간에 자발적 네트워크와 학습공동체가 활발함.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제안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주민 주도로 운영되는 경험이 많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들끼리도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의 ‘스스로 아카데미’나 작은도서관학교 등의 자율연수가 활발함. 어린이작업실 모야에 참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별도로 “살롱”이라는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모임을 가짐.

(운영자들의 워크숍인 살롱에서) “일일 작은손이 되어 보니, 작은손들이 주로 쓰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66쪽)

작은도서관의 모야 운영자들은 자원활동가들이기에 새로운 실험에 대한 흥미,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는 바램과 자발성이 높음.

“모야 참여 어린이들이 이야기꾼이 되어 자신의 작업경험을 들려주면, 청중들이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모야 이야기판’을 열었어요. ‘이야기판’은 전주의 판소리의 입말의 전통을 이어 만든 활동으로, 작은손인 어린이 이야기꾼 7명에 청중 40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PPT를 준비해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전주의 이야기판의 입말과 PPT라는 전자말이 어린이작업실 모야와 결합한 책마루스러운 활동이 만들어졌어요.”(전주 책마루도서관 관장 인터뷰)

- ⑥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한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향이 있고 보직의 순환도 없기에,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지속성을 유지하기 쉬움. 어린이작업실 모야와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간, 재료, 서비스, 인력을 갖추는데 수개월의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업이 필요함. 프로그램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생기면 의사소통과 일관성 있는 운영에 차질이 생기기 쉬움.



미래형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변화

1. 외적 변화

- 이용자의 한계와 자격을 정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여는 작은도서관은 도시계획의 틀에서 만들어지고 배치되어야 함. 거점형 도서관을 중심으로, 중형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배치하되,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에는 작은도서관을 도보로 10분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배치 혹은 재배치함.

“도서관의 위치는 그 사회가 도서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도서관은 시험공부 하는 곳이거나, 책을 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치를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윤송현,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65쪽.

- 작은도서관은 여타의 공공도서관처럼 편안하고 아름답게 지어져야 함. 유현준 교수가 설계를 맡은 32㎡ 규모의 전주시 ‘옛이야기도서관’은 지역의 지형과 특색을 살린 작은도서관의 건축이 더욱 심미적이고 창의적일 수 있음을 보여줌. 전주의 크고 작은도서관 건축물들은 전주시민의 행복감을 높일뿐더러, 투어 프로그램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도시 경쟁력도 높이고 있음.
- 작은도서관이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의 성공 여부는 자료나 공간의 측면보다는 전적으로 운영자의 역량에 달려있음. 즉, 창의적인 사회적 실험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고, 아웃리치와 독자개발을 할 수 있으며, 활동가와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할 역량은 고도의 현장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함.
- 현장의 전문성 있는 운영자가 지속 가능하게 작은도서관을 꾸려가고, 다음 운영자의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전담인력 (사서 1인을 포함하여 최소 전담인력 2명 이상)과 이를 위한 인건비와 장서구입, 운영비용을 공공예산으로 지원해야 함.
- 작은도서관들은 거점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로 연결되어야 함. 이용자는 집 주위의 도서관에 가더라도, 거점도서관이 가진 풍부한 컬렉션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탄소 제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에서, 작은도서관 건물은 복합화될 필요 있음. 커뮤니티의 인구 구성과 요구에 따라 보육, 교육, 문화예술, 보건, 상업, 휴식, 업무 시설과 결합. 작은도서관의 장서와 서비스, 오픈 시간도 커뮤니티의 요구에 따라 조정이 필요함.
- 현재 공공성과 역량의 차이가 많은 약 7000개의 작은도서관을 모두 위와 같은 수준에 맞춰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함. 반대로, 모든 사립작은도서관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

로 공적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 큼. 사립작은도서관의 아웃리치 서비스 노하우, 많은 독서량과 독자상담 경험,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 커뮤니티의 요구에 맞는 책 문화활동 기획력, 독서동아리와 같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하는 역량은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과 경험으로만 획득할 수 있기 때문. 또한 이러한 역량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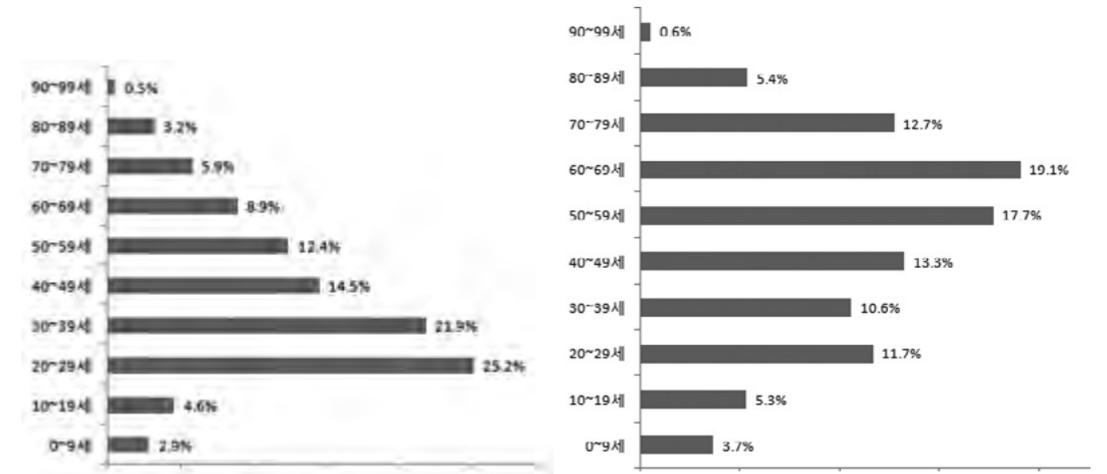
“도서관의 폐쇄는 단지 시설의 폐쇄가 아닙니다. 그곳에 편안하게 모였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 무언가를 해내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들었는데 그러한 활동의 축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원활동가 인터뷰 재인용, 장지은 외, “작은도서관의 학습창조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과학연구』, 48(4), 126쪽

-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 활동력 있게 운영되어 온 많은 수의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한국에 고유하며 세계에서도 이처럼 대규모의 사례를 찾기 어려움. 데이비드 랭크스와 같은 학자가 커뮤니티 도서관을 보려면 한국에 가보라고 극찬할 만큼,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활발히 운영되는 사립작은도서관은 도서관계와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임. 거점도서관은 작은도서관들과 커뮤니티와 관련 활동에 파트너로 연결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음.
- 윤송현의 제안처럼, 사립작은도서관 중 위의 역량을 갖고 공공성이 높은 곳을 ‘공공형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이나 (윤송현 외, 『청주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2021) 혹은 박소희의 제안처럼, 활동력이 높고 오래 검증된 사립작은도서관들에게 공적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시설유지비를 지원하는 방법 (서울 성북구의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들’의 사례, 평생학습센터 1층을 제공받아 운영하는 대전 ‘모퉁이도서관’ 사례, 박소희, 전해선, 『우리 동네에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203쪽)이 있음. 공적 장소 제공은 작은도서관의 위치를 재배치하여 분포를 고르게 하는 효과를 가짐.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자의 역량, 그가 가진 지역주민 및 지역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가져가면서, 기존의 장서와 가구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공간을 옮기면, 낮은 비용으로도 작은도서관을 재배치할 수 있음
- 작은도서관이 특화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평가, 즉 서비스 기획의 실험성, 아웃리치 서비스, 독자개발, 미시 커뮤니티 형성 등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어려움. 작은도서관의 평가에 정성평가가 확대되어야 함.
- 지역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세계 13위의 한국의 경제력으로

불가능하지 않음. 문제는 우선순위임. 유권자들은 집 가까이 “더 아름다운, 더 창의적인, 더 역량이 있는, 크고 작은도서관”을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해야 함.

2. 내적 변화

- 근미래에 작은도서관이 일반도서관보다 더 특별하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로, ① 도서관들의 실험실 ② 아웃리치 서비스와 독자개발 ③ 미시 커뮤니티 도서관 ④ 교통약자의 유일한 도서관을 제시하였음. 이를 고려할 때,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역량과 태도를 키워가야 함.
-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지역의 데이터를 마이크로 단위로, 즉, 도보 5~10분 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함. 예를 들어, 마포구 서교동과 도봉구 도봉1동의 연령대별 인구비율(2022년 10월)을 살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음. 연령별 인구뿐만 아니라, 이주민, 결혼이민자, 인구유입, 종사하는 산업 등 총인구조사를 통해 공개된 정보를 통계청에서 찾아야 함. 서비스하는 지역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축적해야 함.



	서교동	도봉1동
어린이 청소년 (0~19세)	1,834명 (7.5%)	1,881명 (9%)
청년 (18~34세)	9,769명 (39.7%)	3,886명 (18.5%)
중장년 (40~64세)	7,905명 (32.2%)	8,599명 (41%)
노인 (65세 이상)	3,287명 (13.4%)	5,821명 (27.7%)

표 9. 서울 마포구 서교동과 도봉구 도봉 1동의 연령별 인구구성 (2022년 10월)

- 서비스 지역의 인구 구성과 도서관의 이용자 인구 구성을 비교하여, 거주 인구대비 주이용자 층과 비이용자층을 분석해야 함.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① 주요 이용자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 ② 도서관 아웃리치와 독자개발 대상 선정 ③ 활동가 양성을 구상할 수 있음.
- 공공형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갖추어야 함. 사회가 복잡화됨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도 높아졌음. 연령, 성별, 직업, 결혼 유무, 자녀 유무, 종교, 인종, 국적, 성적 정체성이 다양한 가족과 삶의 형태를 알아보고 이해하고 편견 없이 포용하려 노력해야 함. 결혼적령기가 없어지고 만혼도 늘어감에 따라 육아하는 부모의 연령도 다양해짐. 조부모 육아, 한 부모 육아, 다문화 결혼, 입양 등 가족의 구성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 서비스에는 인권 감수성이 필요함.
- 다이에나랩, 인포츠포털개발가 펴낸 「차별없는 가게 가이드북」은 사회적 소수에 속한 이들이 차별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함. 공간의 접근성(핸드레일, 경사로)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쉬운 말 안내, 그림 안내, 수어 안내 등), 마음의 접근성(어린이, 소수자, 다국어 환영 메시지, 편견 없는 언어 등)을 높이는 시도임. 느린학습자를 위한 도서관인 '라이브러리 피치'의 안내문은 모두 쉬운 글과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음. 작은도서관들이 협업하여 도서관의 공공디자인을 더 포용성있게 개선할 수 필요있음.
-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기획자의 역량을 가져야 함. 이는 아웃리치 서비스, 독자개발, 미시 커뮤니티 형성, 도서관의 실험에 특별히 더 요구되는 능력임. 박미숙, 강상구는 「작은도서관, 일상적인 지역문화공간으로 의미와 해석」(2019)에서 “기획은 목표를 조율하는 일”이며, 작은도서관에서의 기획은 “콘텐츠를 구현하기 위해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기 위해”, “평범한 이들이 일상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변화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 다른 곳에서 검증된 프로그램이라서, 반대로 다른 곳에서 해보지 않은 서비스를 먼저 하기 위한 기획은 하나의 에피소드이기 쉬움. 목표와 방향에 맞는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는 실험성, 창의성, 유연성이 요구됨.
-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능력이 필요함. 직원의 업무를 관리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공공도서관의 관장과 달리, 폭넓은 연령대의 이용자와 프로그램을 속에서 직접 소통하기 때문. 작은도서관은 미시 지역사회의 기관들과 협업, 복합시설 내 다른 시설과의 협력으로 다양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음.
- 미시 커뮤니티를 형성할 때, 심리적으로 '안전한 거리'는 이용자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느린 학습자를 위한 라이브러리 피치의 입구에선 두 가지 팔찌가 구비되어 있음. “혼자 읽을래요”와 “대화하고 싶어요”로, 대면의 상호작용에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다름을

인식한 디자인임. 사서의 데스크에 “편안하게 탐색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세요”와 같은 사인을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놓으면, 이용자는 사서의 침묵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일부러 배려한다는 메시지를 받음.

-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고 학습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이 필요함. 이는 모든 미래직업의 필요한 역량이나, 도서관 운영자에게는 더욱 필수적임. 정보와 지식, 평생학습이 도서관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고, 이 역량을 갖추어야 이용자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활동가는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연수와 학습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원활동가와의 협업이 필요함. 자원활동가의 자기 성장 욕구에 귀 기울이고, 그의 관심사와 역량에 맞게 활동을 맡겨야 함. 이때 분명한 역할과 기대치를 명확한 언어로 정의해야 자원활동가가 업무의 범위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음. 협업과 의사소통의 도구를 갖춰(디지털 협업툴이나 일지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소통함.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감사의 표시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실험실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의미를 갖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함. 작은도서관은 활동과 고민을 기록하고, 전자매체나 SNS를 통해 알려야 함. 이는 작은도서관의 이용자와 지지자를 넓히는 창구가 됨. 본 연구도 작은도서관인들이 남겨놓은 자료가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음. 작은도서관의 실험은 연구자들과 결합할 필요가 있음. 문헌정보학 뿐 아니라 문화인류학, 사회학, 교육학, 행정학 등의 연구 대상으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함.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의 변화 중, ① 한국 사회의 인구변동 ② 비대면의 확산 ③ 환경위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추이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를 논증하였음.
- 인구변동과 관련해서는 초근접거리 도보이동이 최적인 교통인구가 급격히 늘고(현재 총인구의 30%→2040년 40%), 사회적 고립을 겪기 쉬운 1인가구 중심의 가구 구성(현재 총인구의 33.4% → 2030년 35.6%)에, 은퇴자의 인구가 급증하며 (65세이상 인구 비율 2020년 총인구의 15.7% → 2030년 25.5%, 2040년 34.4%), 이주민은 증가추세(현재 총인구의 4.37% → 생산인구 저하로 증가 예측)에 있음.
- 비대면과 관련해서는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집과 동네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유연근무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함. 무인화와 자동화로 디지털 정보의 수용성에 격차가 생김. 정보의 격차는 경제적 격차와 생활 편의의 격차로 심화됨. 에코 체임버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과의 교류가 낮아짐. 다양성과 인권의식을 높일 기회가 줄어들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대면 서비스로만 존재하는 돌봄의 필요가 늘어남.
- 환경위기와 관련하여, 지구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2040년까지 1.5도 상승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앞으로의 10년동안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 인류 지속의 마지막 기회임. 파리의 15분 도시계획처럼 자동차와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을 무동력의 자전거와 도보 중심으로 전면 바꾸고, 업무 및 생활기반시설을 15분 내 거리로 좁히는 도시계획이 시급히 요구됨. 거점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도서관을 복합화하여 분포를 촘촘히 해야함.
- 미래 작은도서관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음. ① 도서관들의 실험실 ② 아웃리치 서비스와 독자개발 ③ 미시 커뮤니티 도서관 ④ 교통약자의 유일한 도서관
- ① 도서관들의 실험실: 작은도서관은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신속성으로, 큰 규모의 도서관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왔음.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에서 폭넓게 이루어지는 활동 (어린이 서비스, 그림책 독서모임, 어린이와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활동가, 다문화자료와 서비스 등)은 작은도서관에서 몇 년 앞서 실험하고 성공과 실패의 노하우를 정리한 토대 위에 정착할 수 있었음. 한국 사회의 10년 전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도서관의 새

로운 실험이 필요한 영역이 많음. 특히 은퇴자인 베이비붐 1,2세대, 비대면 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 1인가구, 고령자, 깃 워커, 이주민, 장애인, 다양한 가족 커뮤니티를 포용하는 기획이 시급함. 내용적으로도 이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변화된 인권감수성, 문화다양성, 동물권, 기후 리터러시, 돌봄 등 다양한 실험이 필요함.

- ② 아웃리치 서비스와 독자개발: 작은도서관은 초기부터 '지역사회의 정보와 지식 소외층'에 관심을 두며 일반공공도서관이 수행하지 못하는 아웃리치 서비스를 개발해왔음.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아 컬렉션이 압도적이지 않기에 신참자가 장서를 네비게이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음. 운영자는 신참자를 관찰하기도 말 걸기도 쉬워 개별화된 독자상담을 제공하기 쉬움. 서로가 익명이지 않아 관심사로 알기 쉽고 소속감도 높아짐. 다인수 학급과 소인수 학급의 차이처럼,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비이용자를 위한 개별화 서비스에 집중하기 쉬움.
- ③ 미시 커뮤니티 도서관 : 작은도서관은 시작 초기부터 장서는 적더라도 좀 더 나은 커뮤니티에 목적을 두고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해왔음. 공동체 지수가 OECD 최하위인 한국에서 작은도서관은 주로 '미시 커뮤니티'의 형성에 도움이 됨. 미시 커뮤니티는 개인이 직접 상호작용하는 아주 가까운 환경임. 미시 커뮤니티에서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기 쉽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음. 이용자는 자신이 기획한 활동을 도서관에서 제안하고 운영할 기회가 많아짐. 이는 커뮤니티에 대한 더 강한 소속감과 애정,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옴.
- ④ 교통약자의 유일한 도서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교통약자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마다 큰 도서관을 짓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음. 도시 내에 교통약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이 거점 도서관 사이에 촘촘하게 위치하면 이들의 도서관 접근성이 높아짐. 유아차를 끌고, 어린이가 잠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의 부재는 출산과 육아기의 핵가족에게 도서관 접근 기회를 박탈함. 또한, 노화 혹은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독거 노인 인구는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 정보, 문화, 친교, 성장의 기회는 이들에게 필수적임.
-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형 작은도서관이 되기에 필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작은도서관은 전체 도시계획의 틀에서 만들어지고, 교통약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도보 10분 내로 배치 혹은 재배치되어야 함. 작은도서관의 건축, 전담인력 배치와 인건비, 장서, 운영비는 공공예산으로 지원해야 함. 작은도서관은 거점도서관과 상호대차 서비스로 연결되어야 함. 사립작은도서관 중 역량있고 공공성이 높은 곳을 '공공형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하거나, 공적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립작은도서관의 아웃리치 역량과 미시 커뮤니티 형성 역량, 실험적 기획역량을 지역사회에 돌려주어야 함. 작은도서관의 정성평가가 확대되어야 함.

- 작은도서관 내적으로, 운영자는 지역의 데이터를 마이크로 단위로 축적해야 함. 공공형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을 갖추어야 함.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웃리치 서비스에는 인권 감수성이 필요함.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기획자의 역량,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능력,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가져야 함. 자원활동가의 자기 성장 욕구에 귀 기울이고, 명확한 역할과 기대치를 명확한 언어로 정의해야함. 실험실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의미를 갖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요하고, 전자매체나 SNS로 알려야 함.

참고문헌

- 강준근, “지속가능한 작은도서관의 발전방안”, 「제56회 전국도서관대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작은도서관 발전방안 워크숍 자료집」, 한국작은도서관협회, 2019, pp.3~20.
- 구본진, 장덕현,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분포의 특성과 공급 불균형 양상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작은도서관협회, 52(2), 2021, pp.189-208.
- 국토교통부,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2022.
- 김세훈, 『문화공간의 사회학, 국가, 공공영역 그리고 도서관』, 한국학술정보, 2002.
- 김경집, 김은하, 류영호, 이영남, 이정모, 장은수, 한기호, 「도서관 담론: 도서관의 미래를 말하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8.
- 김소희, 공유선, 오혜자, 박미숙, 박소희,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청어람미디어, 2015.
- 김영옥, 류은숙, 『돌봄과 인권』, 코난북스, 2022.
- 김자영 외, 「작은도서관, 10년 활동가가 말하는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2017.
- 김찬호, 『대면 비대면 외면』, 문학과지성사, 2022.
- 김현중, 이종길, 여관현,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와 결정요인”, 「서울도시연구」, 16(4), 2015, pp.109-127.
- 김홍렬 외, 「작은도서관 정책 연구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 노영희, 최만호, 김윤정, “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5(2), pp.1-24.
- 성연주, 「차별없는 가게 가이드북」, 다이애나랩, 인포숍카페벌꿀, 2021.
- 박소희 글, 전해선 사진, 『우리 동네에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책숲놀이터, 2019.
- 박소희, 『여기는 작은도서관입니다』, 학교도서관저널, 2019.
-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14.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새로운 콘텐츠를 실험하다」, 2021.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코로나 시대를 관통하다」, 2021.
-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2021년도 작은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2022.
- 서울연구원, 「서울시 고령인구 밀집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근린환경 개선방향」, 2022.7.4
- 서울연구원, 「서울시 미래세대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방향」, 2021. 10.13.
- 서울연구원, “1인가구의 다차원적 특성과 유형화: 지원 방향과 전략의 출발점”, 「서울연구원 1인가구 정책포럼 자료집」, 2021.
- 성은영, 강현미, 허재석, 「n분 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전략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2021.
-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외 47개관, 『마흔아홉,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2018.
- 양재섭, 성수연, 「서울시 고령인구 밀집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근린환경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353호, 2022.
- 엄기호,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나무연필, 2018.
- 에릭 클라이넨버그, 서종민 역,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불평등과 고립을 넘어서는 연결망의 힘』, 웅진지식하우스, 2019.
- 윤송현 외, 「청주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2021.
- 윤송현,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학교도서관저널, 2022.
- 장지은, 조대연, 박은솔, “작은도서관의 학습창조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과학연구」, 48(4), pp.107-131.
- 정기용, 『기적의 도서관: 정기용의 어린이 도서관』, 현실문화, 2010.
- 정석, “걷는 도시 만들기 25년, 최고와 전망-서울시를 중심으로”, 「건축과 도시공간」, Vol.40, 건축공간연구원, 2022.
- 정은주, 『즐거운 다문화도서관』, 학교도서관저널, 2020.
- 정지원 외, 『뉴그레아: 마케터들을 위한 시니어 탐구 리포트』, 미래의 창, 2022.

- 최재연, 김찬호,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의 특성과 역할”, 「국토계획」, 50(4), 2015, pp.165-184.
- 하승우, 『공공성』, 책세상, 2014.
- 한국노동연구원, 「2022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한국노동연구원, 2022.
- 파리기업행정연구소(Chaire-ETI), 박정윤 역, 한승훈 감수, 『15분 도시 백서』, 국토연구원, 2022.
- IPCC, 2021: Summary for Policymakers. In: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Masson-Delmotte, V., P. Zhai, A. Pirani, S.L. Connors, C. Péan, S. Berger, N. Caud, Y. Chen, L. Goldfarb, M.I. Gomis, M. Huang, K. Leitzell, E. Lonnoy, J.B.R. Matthews, T.K. Maycock, T. Waterfield, O. Yelekçi, R. Yu, and B. Zhou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nited Kingdom and New York, NY, USA, pp. 3-32, doi:10.1017/978
- KBS <명견만리> 제작팀, 『명견만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를 말하다, 정치, 생애, 직업, 탐구 편』, 인플루엔셜, 2017.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기금 시즌 2 정책연구

미래에 "꼭 필요한" 작은도서관의 역할 모델 연구

발행일 : 2023년 9월

연구책임자 :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

1세대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